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상태

The Glorious State of God's Saints In Heaven

by
Don Fortner

© Don Fortner 2007.
All rights reserved.

My desire is not to restrict, but to further the use of the materials in this book. Any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 prior permission.

Don Fortner
2734 Old Stanford Road
Danville, KY 40422

목차

1. 은혜와 영광 (시편 84:11)
2.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도서 4:1-2)
3.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27)
4. 하늘 영광의 형상 (계시록 21:1-27)
5. 하늘: 만족의 장소 (시편 17:15)
6.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12-13)
7. "하나님의 상속자들" (로마서 8:17)
8. 천국에서 상급의 단계가 있을 것인가? (계시록 21:4)
9. 천국에선 눈물이 없다 (계시록 7:17)
10. 천국 기업의 규모 (로마서 8:18-23)
11.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 다시 얻은 낙원 (계시록 22:1-5)
12. 믿는 자의 사망을 통한 영광에로의 쉬운 경로 (출애굽기 15:16-18)
13. 천국 누가 들어갈 것인가? (계시록 2:1-27)
14. 아, 놀라운 약속 (로마서 16:20)

15. 귀한 죽음들 (시편 116:15)

16.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시록 22:4)

1. 은혜와 영광

시편 84:11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무엇이 천국인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즉각적으로 천국에 갈까? 무엇이 천국에 성도들이 있을 조건이거나 상태인가? 누가 하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무슨 근거로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들이 내가 여기서 그리고 이어서 할 공과들에서 답하기를 소망하는 질문들이다. 이 위대한 주제의 겉만 훑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에 깨달았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다리는 그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우리의 기업의 광대함은 우리의 하찮은 두뇌의 영역을 넘어 몇 광년에 이른다.

나는 이 주제를 모두 소진할 가망은 없다.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모든 공허한 의혹과 추론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였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를 제시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시편 84 편은 "행진곡"으로 제목에 서술되어 있다. 11 절에서, 하나님의 순례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들을 갖고 이 세상을 통하여 행진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 시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앗아가며 우리의 주의를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며 구원자께로 불러들인다. 이 세상에서의 은혜나 이후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가 되든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은혜와 영광의 원천은 주이다. 은혜와 영광의 보증은 주이다. 그리스도만 우리 구원의 반석이다. 은혜와 영광을 그분에게서 만 찾아야 한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

“주다”라는 말은 은혜나 영광이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에게 의해서 받거나, 받을 가치가 있거나,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한다. 이 본문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은혜의 발판 위에 둔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하사 하시도록 사람에게 의해서 강요 당하실 수 없다. 그리고 영광을 하사 하시도록 사람에게 의해 강요 당하실 수 없다. 은혜와 영광 모두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사이고, 하나를 주시는 곳에 다른 하나도 확실하게 주신다.

은혜와 영광은 분리할 수 없는 은사들이다. 그것들은 진정으로 똑같은 것이다. 은혜는 씨 안에 있는 영광이다. 영광은 만개한 은혜이다. 영광은 은혜 안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은혜는 영광 안에서 완성된다. “은혜는 시작된 영광이며, 영광은 완성된 은혜이다. 은혜는 꽃 봉오리 속에 있는 영광이며, 영광은 열매 안에 있는 은혜이다. 은혜는 영광의 가장 낮은 단계이며, 영광은 은혜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Francis Burbitt).

이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두 개의 은사, 은혜와 영광이다. 그분이 주신 첫 번째 것은 은혜이다. 그분이 주시는 마지막 것은 영광이다.

은혜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우리가 “은혜”라는 그 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하나님의 부요이다. 믿는 자의 생애와 체험과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에 속하였다. 모든 믿는 자는 기쁘게 고백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아, 은혜에 빛진 자 됨이 얼마나 좋은지
매일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네!
주께서 그 은혜를 차고처럼,
내 방황하는 마음을 당신께 묶으시네.”

굵은 글자로 된 이 약속을 상상할 수 있는 기쁨으로 읽어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약속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삼일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그분 자신의 거절할 수 없는 권능으로, 그분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은혜를 대가 없이 돌이킬 수 없게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우리는 그분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안다. 그것은 분명하게 단언되어 있다.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인가?

주께서 그분 자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롬 9:15-16). 은혜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은혜를 그분이 뜻하신 자에게 주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 특권이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 하셨던 자들의 타락한 자손들

가운데 맺이다 (요 15:16; 마 11:25-27).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에 택정하심의 사랑 가운데 택함 받은 그들 중 아무도 이 세상을 지나치기 전에 긍휼의 그릇이 되어 그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모든 죄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고 사들여진 각 죄인은 그분의 것이 될 것이며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피로 구속 받은 모든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엡 1:7; 골 1:14). 그분이 사신 모든 자는 화해의 은혜를 갖게 될 것이다 (골 1:20).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저주가 되었던 자들은 모두 대가 없는 의롭게 됨의 은혜를 갖게 될 것이다 (롬 8:34; 갈 3:13).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죄가 되기로 하였던 자들은 모두 의의 은혜를 가질 것이다 (고후 5:21). 그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던 모든 자는 영생의 은혜를 갖게 될 것이다 (요 10:8, 27).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은 효험 있는 구속이며, 그것은 그분의 모든 구속 받은 자를 위하여 은혜를 틀림없이 보증한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피로 사신 양 가운데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몸의 단 하나의 지체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어떤 부분도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가장 확실하게 은혜를 받을 것이다 (엡 5:25-27; 요 10:16).¹

주께서 각각의 믿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누구를 그리스도께서 구속 하셨는지 그들이 복음을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각기 믿는 자는 모두 택함 받고 구속 받았음을 하나님에 의해

¹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정 하심과 그리스도의 효험 있는 구속은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열렬히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의 택하시고 피로 사신 바 된 백성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 53:9-11).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약속 하셨기 때문이다 (막 16:16; 요 1:12-13; 3:14, 15, 36; 롬 10:9-13).

복음의 장단은 이것이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의 보혈 만이 당신의 구원과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죄인은 그가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당신이 믿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죄인은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은혜는 무엇인가?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주께서 약간의 은혜를," "은혜들을," 혹은 "하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 본문은,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한다. 암시하는 것은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

곳이라면 그분은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주께서 주실 것이라...”

- 거듭남의 은혜 (엡 2:1-5).
- 의롭게 하는 은혜 (롬 5:1-9).
- 거룩하게 하는 은혜 (히 10:10-14).
- 보존하는 은혜 (빌 1:6).
- 가르침의 은혜 (요 16:13).
- 지시하시는 은혜 (잠 3:5-6).
- 위로하는 은혜 (요 16:7; 애 3:24-25).
- 새롭게 하는 은혜 (사 57:15).
- 충만한 은혜 (고후 12:9).

“짐이 더 커질 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며, 수고가 늘어날 때 더 강함을 보내신다. 더해진 고통에 그분은 그분의 긍휼을 더하시며, 배가 된 시험에 그분의 배가 된 평안을 더하신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우리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명하신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중보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주신다. 물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선택 받은 죄인들이 그것을 찾기 전에 그들에게 온다 (사 65:1).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을 찾게 된다. 그리고 그분을 정직하게 찾는 자들에게 그들이 그분을 찾을 것임을 약속하신다 (렘 29:13-14). 믿는 자들은 주를 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다. 그분은 기도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명령을 지키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 위에 부어지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때를 따라 주신다. 우리의 날들이 요구하면, 그분의 은혜가 주어진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그분의 은혜를 주신다. 그분은 언제나 은혜로우실 것이 준비되어 계시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신다.

“집에 있든, 밖에 있든지, 땅 위든지 바다 위에서 든지,
너의 날이 요구할 것처럼 너의 힘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을 할 수 있는 한 폭넓게 읽어보라. 인생의 어떤 조건과 상황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임이라”는 당신, 곧 하나님의 자녀에게이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을 섬길 은혜를 주실 것이며 (고후 12:9), 그분을 대신하여 고통 받을 은혜를 주실 것이며 (빌 4:13), 유혹을 참을 은혜를 주실 것이며 (고전 10:13), 그분 안에서 죽을 은혜를 주실 것이다 (딤후 4:6-8).

은혜를 주실 분은 누구신가?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은혜는 하나님 만의 선물이다. 당신은 은혜를 당신 자신으로부터, 교회에서, 어떤 상상 속의 제사장으로부터, 어떤 상상 속의 제단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얻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은혜를 받을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 그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요 1:16-17).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께 매달리라! 그렇게 하며, “주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영광

본문은,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고 한다. 그 짧은 연결된 말, “그리고”는 황금보다 더 귀하다. 그것은 은혜와 영광을 영원하게 연결하는 불가피한 연결고리이다.

그 연결 고리를 없애기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본문은, “주께서 은혜와 파멸을 주실 것이다.”든지, “은혜와 연옥”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은 은혜가 없이 영광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 영광이 없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은혜가 없이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없다. 그 둘은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연결해 놓은 것은 아무도 갈라 놓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가진다면, 우리는 영광도 또한 가질 것이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가 없이는 하나만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은혜는 봉오리이다. 영광은 꽃이다. 은혜는 샘이다. 영광은 강이다. 은혜는 첫 열매이다. 영광은 풍성한 추수이다. 은혜를 갖고 있다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광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를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결코 이후에 영광을 갖게 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로 의롭게 되지 않은 자는 누구라도 영화롭게 되기란 불가능하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은혜로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없다. 은혜와 영광은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

그분께서 주실 영광은 무엇인가?

보잘 것 없고 땅에 속한 어떤 두뇌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고전 2:9).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에 속한 어떤 것을 계시 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이끌렸을 것이다 (고전 2:10).

하늘의 영광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하므로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말했다. 하늘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그곳은 설명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장소이다. 그곳은 설명하기 힘든 기쁨의 상태이다. 그것을 묘사하는 비유적인 언어로 무엇이든 의미 할 수 있겠지만,² 하늘의 모든 것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주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던 자들 모두에게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온전함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² 정금길, 진주문, 벽옥성벽, 왕관, 손뿔, 하프, 찬송, 생명수의 강, 열매를 맺은 나무들, 생명 나무,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묘사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영원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영원의 영광이다. 영원이다! 누가 그 말을 정의할 수 있겠는가? 지구상 아무도 "영원"이란 말의 의미를 추측할 수 없다. 우리는 영원을 시간하고 언제나 혼돈한다. 우리는 "영원의 끝 없는 세대"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영원 가운데 세대란 없다. 영원은 결코 멈추거나, 쇠퇴하거나, 결론에 가까이 이르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영원에 싫증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 가운데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다. 영원은 변치 않고, 그치지 않는 환희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은 우리의 중보자, 보증, 언약의 머리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롬 8:17; 요 17:22).

우리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보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영광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에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은 실질적인 체험으로 내가 방금 쓴 것의 의미를
알기를 갈망한다. 아, 영광을 아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는 캄캄하게 창문을 들여다 본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과 얼굴을
마주하기를 갈망하고, 먹구름이 걷히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늘의 잔잔한 대기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왕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승리의 영광

이 영광은 완전한 승리의 영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정복자 그 이상이다 (롬 8:32-39).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로부터 우리는 여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롬 16:20).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때,

사망이 더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죄가 우리에게 더이상 비탄을 주지 못할 것이며, 사탄은 우리를 더이상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본성의 영광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완전한 본성의 영광이다 (엡 5:25-27; 유 24-25). 이것은 예정과 택정과 구속과 거듭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였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는 완벽한 본성, 흠 없음, 죄 없음, 부패하지 않는 본성; 약함과 병과 노호나 사망이 없는 육체; 유혹과 죄와 염려나 고난이 없는 혼; 불신과 비통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조화 가운데 있는 의지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영광 가운데 우리는 완전한 본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거룩, 완전한 거룩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 본문 가운데 약속된 영광은 완전한 안식의 영광이다 (히 4:11). 하늘의 영광은 영구한 안식,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행복과 완전한 안도의 끝없는 날이 될 것이다.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 소망이나 충족되지 않은 갈망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모든 권세는 뉘증남이 없이 넉넉히 쓸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죄에 대한 두려움 조차 없는 완전한 면죄를 받게 될 것이다." (C. H. Spurgeon). 이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영광이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할 것이며, 우리 구원자께서 뜻하시는 것을 할 것이며, 우리 구원자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할 것이며, 우리 구원자의 영광을 완벽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요하고 대가 없고 풍성한 은혜의 선물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 자기 자신의 공로로 하늘에 온 훈은 하나도 없다. 사람의 수고로 받은 왕관은 하늘에 없다. 구속 받은 자의 노래를 망칠 자기 의의 악보는 없다. 영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영광을 주께서 언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어떤 자는 속히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자는 아마도 한동안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확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 일이 끝나자 마자, 조만간 “주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그 시간에, 더 이르지도 더 늦지도 않게 “주께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도록 하자 -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광에 비교할 가치가 없다 (롬 8:18).

2.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도서 4:1-2

“아들들아 아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자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들”을 생각한 후, 이 세상 가운데 학대 받은 자의 눈물, 학대하는 자들의 권세,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아무런 위로가 없다는 사실과,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이미 죽은 죽은 자를 나는 찬양하였다.”고 말했다. 계시록에서, 비슷한 문장을 읽게 된다 -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나니.” (14:13).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작별을 고할 때, 우리는 슬픔과 흐느낌으로 가득 찬다.

왜 그런가? 만약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자가 불신자라면, 그 슬픔은 이해가 된다. 불신과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에 죽는다. 만약 우리의 슬픔이 친구들을 떠나 보내는 슬픔이라면, 그것은 이유가 된다. 우리 가운데 소중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과 잠깐이라도 헤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슬픔이 소망이 없거나, 어찌할 수 없는 비탄이나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신 까닭에 하나님께 화가 난 자들의 슬픔이라면,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슬픔은 무지와 불신을 드러내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복된 상태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를 불신하는 것을 드러낸다.

이 공과에서,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즉 떠나간 우리의 친구들이 잘 살아 있다는 것을 성경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비록 그들의 몸은 죽고 흠에 묻혔지만,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살아 있고 행복으로 충만하다.

구속 받은 자들의 혼은 하늘에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속 받은 죄인들의 혼이 죽은 후 즉시 하늘로 들어가 영원히 기쁜 상태로 들어감을 보여 주겠다. 이단자들의 어리석은 질문과 이교도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내 의도가 아니다. 사망 후의 삶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억측으로 옆길로 벗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불멸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우리의 유일한 정보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이 영원의 비밀을 벗기실 수 있다.

우리는 불멸의 죽지 않는 혼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비록 이 몸이 죽고 들짐승들처럼 땅에서 썩어야 하지만, 우리 혼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당신이 죽자마자 당신의 혼은 끝없는 기쁨이나 비탄스러운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사람은 개처럼 죽지 않는다. 당신의 개가 죽을 때, 그것으로 끝이다. 존재가 그쳐진다. 그러나, 당신이 죽을 때,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당신의 혼은

살아 있으며, 수면이나 무감각하거나 비활동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의식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 있다.

믿는 자들과 구속 받은 죄인들,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의 혼, 하나님의 성도들의 혼은 사망 시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떠나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사망 가운데 그들의 눈이 감겨지자 마자, 영광 안에서 다시 뜨게 된다.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분과 함께 그들을 모두 데리고 오실 것이며, 그들의 몸을 흠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부활 영광 안에서 그들의 몸과 혼은 연합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직 살아 있는 믿는 자들은 변화되고 영화롭게 되어 영광 안으로 들려질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살전 4:13-18).

비록 지옥이 천국만큼이나 실질적이고, 저주가 구원만큼 실질적이지만, 내가 당신의 생각들을 커다란 슬픔과 한탄스러운

일들로 돌리지 않으면, 나는 죽은 후 악하고 믿지 않는 자의 끔찍한 상태에 대하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것들은 즉시, 사망 가운데 그들의 눈을 감자마자, 지옥의 고통 속에서 깨어날 것이다. 만약 독자가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며, 그래서 소망이 없다면, 경고를 받도록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위에 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다면, 영원히 저주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 것은 소망 없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일이 다르다. 믿는 자는, 그가 죽자마자, 영원히 살아난다. 그의 혼은 즉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는 집으로 간다.

믿는 자가 하늘에 들어감은 즉각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언제나 하늘의 축복과 영광 안으로 즉시 들어 감으로 언제나 표현된다. 실제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다. 우리 주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요 11:26).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몸의 사망은 혼의 자유이다. 그리고 우리 혼이 죄와 사망의 이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자 마자, 우리는 하늘로 들어갈 것이다.

의로운 자가 세상으로부터 사라질 때, 그들은 영원히 의 가운데 산다 (사 57:1-2). 의로운 자가 죽을 때, 그들은 악으로부터 떨어져서 평강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침상에서 쉰다. 그들의 몸은 무덤 속에서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안식한다. 그들의 혼은 그리스도, 그들의 구속자의 품 안에서 안식한다. 우리의 떠나간 친구들은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갔다 (히 4:9-11). 거기서 그들은 똑바로 걷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도록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서 그것을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신다. 그곳에서 우리의 떠나간 형제들은 당당하게, 흠없는 순수함과 거룩함 가운데, 빛나는 기쁨과 영광의 옷을 입고 걷는다.

믿는 자가 죽자 마자, 그는 하늘, 아브라함의 품, 무한한 위로의 장소로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데려가게 된다. (눅 16:22-25)³.

모든 회개한 죄인은, 그가 죽자마자,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도록 데려가 진다 (눅 23:43). 낙원은 하늘이며, 하나님의 동산이다 (계 2:7).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의 여정 동안 가진 짧은 방문 (고후 12:2-4)에 대하여 바울이 들림 받은 곳은 삼층천이다. 낙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이고, 행복과 기쁨과 무한한 환희의 장소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속을 얻기 위하여 죽자마자 가셨던 곳이 낙원이었다 (히 9:12). 낙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에게 보장되고 약속된 기쁨과 의 장소이다. 죽어가는 구원자께서 죽어가는 강도,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로 즉시 변화되었던 강도에게, “오늘 (즉시, 사망의 이 시련이 끝나자 마자) 네가 나와 함께 (나의 충만한 임재와 동행

³ “아브라함의 품”은 사망과 부활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늘의 기쁨의 장소를 가리키는 유대 표현이었다.

가운데 영원히!) 낙원 (하늘)에 있을 것이다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이득,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는 이득이다 (빌 1:21, 23). 바울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연합 안에 있을 것임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서, 그는 죽음을 갈망하는 것으로서 바라 보았다.

사망과 부활 사이에서 성도들의 상태

사망과 부활 사이에서 성도들의 생명의 상태는 무엇인가?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혼은 하늘에서 떠돌아 다지니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특정한 장소로 갔다. 그들은 영화롭게 된 교회로 모였다 (히 12:22-23). 그들의 혼은 알아 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 모세와 엘리야가 알아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화 산 위에

서 있었다 (마 17:3).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을 때, 그는 땅 위에서 그의 문 옆에 누워 있던 바로 동일한 사람으로 그를 보고 알아보았다 (눅 16:23).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망과 부활 사이에 몸을 갖고 있는가? 물질적인 몸인가? 아니다. 영적인 몸, 하늘의 형태, 그들의 혼을 위한 집인가? 바로 그렇다! (고후 5:1). 모든 믿는 자는, 그가 이 육체를 떠나자마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하늘 영광과 기쁨의 확신이다.

사망은 반가운 해방으로서 온다

둘째,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몸의 사망과 혼의 자유함은 반가운 해방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빌 1:21-23; 계 14:13).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만족하기를 추구한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그분 앞에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변화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고 언제나 아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삶은, 좋아 봐야 하늘로 난 혼에 부담이다. 이 장막 안에서 우리는 신음한다 (고후 5:1-4). 우리는 생명이 성장한다! 우리 마음은,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자인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라!"고 울부짖는다. 이 몸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싸운다. 하늘 가운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 몸 안에서 우리는 유혹 받을 것이며 수시로 넘어질 것이다. 하늘 가운데 우리는 결코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며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몸 안에서 우리는 많이 흐느낄 것이다. 하늘 가운데 우리는 더이상 흐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 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갈망한다. 하늘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이 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한다. 하늘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한다! 믿는 자는 그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외국에 있는 어떤 동물원을 방문한 동안 한번 보았던 독수리 같다. 그 독수리는 사슬로 그를 땅에 묶어 놓고 하늘을 응시하며 쇠뿔대에 앉아 있었다. 멀리 있는 구름으로 활공하여 날기를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슬이 그를 땅에 꽂 묶고 있었다.

독수리가 철제 우리 안에서 행복하거나 쇠뿔대에 사슬로 묶여 있을 때, 양이 늑대 무리 가운데에서 행복해 할 때, 물고기가 마른 땅 위에서 행복해 할 때, 그러면, 그리고 그 때가 되기 전에, 이 육신의 몸 안에서 새롭게 된 혼은 행복해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반가운 해방이다 (시 17:15).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죽자마자 하늘로 들어가며 믿는 자의 죽음은 반가운 해방임을 보았다. 이제 이 질문에 답하겠다 - 떠나간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이미 그들이 하늘로 갔음을 당신에게 보여 주었다. 그들은 연옥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림보에 있지 않다. 보그들은 공중을 떠돌아 다니지 않는다. 그들의 혼은 잠들지 않는다. 우리를 떠난 친구들은 하늘에 있다. 그러나 하늘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늘은 이 세상 바깥 어딘가, 시간 바깥 어딘가에 있는 곳이다. 그러나, 그곳은 어떤 장소, 실제 장소이다.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다. 하늘은 그분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로 한 장소이다 (요 14:1-3). 하늘은 떠나간 우리 친구들이 바로 지금 있는 곳이다 (히 12:22-23).

사망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해방이다.

고린도후서 5:1-8 을 읽어보라. 이 여덟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믿는 자의 사망과 천국에 들어감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말한다.

사망은 이 땅에 속한 육신의 해방이다. 이 육신은 땅에 속한 것이다. 이 육신은 단지 땅에만 맞는다. 이 몸은 흠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육신의 해방은 슬픔의 원인이 아니다. Richard Baxter 는, “그것은 내 발을 아프게 하는 신을 벗는 것과 같다 - 반가운 해방!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필요하지 않은 도구를 한쪽 옆에 놓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고 기록하였다. 그것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천막을 걷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의 혼을 위한 다른 집을 갖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의 집 안에 많은 거처들이 있다.” 집, 거할 장소들이다.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이 무엇이 되든지, 그것은 손으로 지은 집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에 의해 예비된 집이고, 영광 안에서 우리 삶에 합당한 집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속한 장막이 없어지자 마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우리 혼을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몸의 해방과

영광 안에 있는 우리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시간의 흐름도, 지연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의 문제이다. “우리는 안다.”고 바울은 말한다.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그 영의 진실함에 의해 (5 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덕에 의해 (7 절) 이것들을 안다. 죽은 후에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당신은, “떠나가 우리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묻는가? 그들은 하늘로 갔다. 그들은 집으로 갔다. 그들은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성경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일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적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계시되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축하하고 찬양한다 (계 5:11-12; 7:11-12).

그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들은 그분의 거룩과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은혜와 신실함과 사랑에 그치지 않고 놀라면서 말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바라보게 된다 (요 17:24).

오 나의 혼이여, 우리 구속자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그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더 많이 알게 되면서 그를 영원히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늘은 무궁화 (샤론의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있고, 그 향기가 모든 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낙원이다. 하늘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그에게서 떼지 않을 것이고, 결코 그렇게 되기 원하지 않을 곳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든 영적 은혜의 지속적인 실행을 하게 된다.

믿음 -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소망 - 우리 형제들은 인내를 갖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

사랑 - 그들은 진실로 서로를 사랑한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끊임 없이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계 7:14-15).

그들은 기도에 몰두한다 (계 6:10). 그들은 하나님의 찬양에 은혜로운 노래를 부른다. 택정과 구속과 거듭남과 의롭게 함과 성화와 보존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그들의 노래의 일정한 주제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서로와 거룩한 전사들과 지속적이고 방해 받지 않는 교통을 하게 된다. 계시록을 무심코 읽으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언약의 긍휼의 경이와 천사장의

사역과 구속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와 신성한 섭리에 대하여 서로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영원히 대화 할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늘로 간 사람들에 관해서 안심하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지쳐버린 여정, 당신의 지치고 고난에 찬 삶이 곧
끝날 것이며 잘 끝날 것임을 확신하라 (고후 4:17-5:1).

3. “영광의 소망”

골로새서 1: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의 복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감추어지고, 모든 불신자에게 감추어져 있으나, 그분의 성도들에게 그분의 영으로 계시된 비밀이다 —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본문 안에서 계시된 세 가지 것들이 있다.

1. 복음 안에서 죄인들에게 약속되고 선포되고 제시된 모든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의 풍성함은 영적 부요이다.

그것들은, 복음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보여지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부른다. 이 풍성함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금과 은과 보석에 비유된 은혜의 풍성한 진리들이다 (고전 3:11-16). 그것들은 복음의 풍성한 진리들-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주권적 택정, 대속의 구속, 전능하고 거절할 수 없고 구원하는 은혜와 변치 않는 보존하심 들이다. 바울이 말하는 풍성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일으켜진 은혜의 풍성한 보물들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택하진 자를 위하여 예비된 은혜에 속한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한 보물들이다 (요 1:16; 엡 1:3; 골 2:9-10). 이 생과 앞으로 올 생과 관련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이며 아멘 이고, 확실하고 절대로 틀리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대가 없는 의 (롬 3:24-26), 절대적인 용서 (엡 4:7), 완전한 화해 (고후 5:17), 영원히 자녀 됨 (요일 3:1-2), 그리고 영생 (롬 3:23)을 갖는다.

2. 그리스도는 또 복음의 영광이다. 골로새서 1:27 을 다시 읽어보라. —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본다. 그것은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는 출애굽기 34 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것을 본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의 실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주권적인 선하심과 굽히지 않는 공의이다 (사 45:20). 하나님의 영광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죄인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려지고 계시된다 (요 1:18; 17:3; 고후 4:6).

3. 믿는 자의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이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우리는 하늘 영광 가운데 불멸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산다. 우리 소망의 근본과 기초와 배경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그것이 이 장의

주제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소유하게 될 영광은 하늘에서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영광의 소망은 복음에 의해 빛으로 보내진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 그 자체는 그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의 은사는 그와 함께 그를 통하여 있다. 그는 그것의 소유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으로 길을 만드셨으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임재와 중보로 그것을 예비하고 있다. 그의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가치가 있도록 한다. 그의 의는 우리에게 그것을 받을 자격을 준다. 그리고 그의 영은 그것에 대한 약조이다.” (John Gill).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 위에서만 세워진다. 그것은 그분의 피와 의와 중보와 은혜 위에 기초한 소망이다. 우리 영광의 소망이 좋으며 근거가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성경 안에 계시된 열 가지 사실들이 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늘에 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불멸과 영생을 소망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과 영광을 약속하셨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 (시 84:11).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 (딤후 1:5). 이 영생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와 영원히 영광 가운데 함께 하는 생명은 복음의 원칙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약속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가운데 중심이다. 실로, 다른 모든 은혜의 축복들은 이것 안에서 끝난다 —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요일 2:25). 그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인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신 약속이다 (딤후 1:2). 이것은 의지할 수 있는 약속이다. 그것은 확실하고 틀림없다. 이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유혹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시험을

받을 때이기 때문이라.”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시험과 고난으로 입증 받았을 때, “생명의 관을 받을 것이며, 그것은 주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약 1:12). 그리고 생명의 관은 “사라져 버리지 않을 영광의 관”이다 (벧전 5:4).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예비하셨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영광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이다 (고전 2:9). 이런 영원한 기쁨의 예비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

하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이다 (마 25:34).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꺾을 수 없고, 좌절 될 수 없으며, 헛된 것이 되지 않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가운데 예비된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이 왕국은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었던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마 20:23). 그것은 예비된 자들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사거나, 받거나, 상으로 받거나, 사람의 행위를 공로로 인한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예비하신 자들에게 대가 없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영광에 예비 하셨던 자들이다 (롬 9:23).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영광의 왕국을 약속 하셨고 예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택하신 자들은 “영광에 이르도록 예전에 예비 하셨던 긍휼의 그릇들”이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로써 그분의 백성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누리도록 예비하려고 준비된 역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정하심으로, 주권적인 예정하심 가운데 영광 안으로 들어가도록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랑의 시간”에 (겔 16:8),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정하신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은혜를 받았고 은혜의 그 영으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그분께 나오도록 효험 있게 결정되었다 (행 13:48; 시 65:4).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자들은 영원 전부터 정해진 영원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매우 확실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영광과 영원한 생명 그 자신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확실히 확정되었다 (살후 2:13-14).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택하셨다.” 당신의 회개와 믿음과 회심의 시작부터가 아니라, 시간의 시작, 영원 전부터 택하셨다. 이제 믿는 모든 자, 앞으로 믿을 모든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신 방법은 분명히 계시되어 있다.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 거듭남. “그리고 진리에 대한 믿음” —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 복음에 의하여 그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그곳에” — 복음의 전파.

우리가 택정함을 받고, 예정 되었고, 부름 받았던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영광이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얻으심 에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고 이제 소유하고 계신 바로 그 똑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의 손 안에 갖고 계시다 (요 17:2). 그분은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요 17:5, 20). 우리는 그 것에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롬 8:29).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질 것이다 (롬 8:28-31).

여기 깨질 수 없는 은혜의 경이로운 황금의 사슬이 있다. 그것은 예정하심 가운데 시작되어 영화롭게 하심 가운데 마쳐진다. — “그가 미리 예정하신 자들, 또한 그가 부르셨던 자들, 그리고 그가

또한 의롭게 하셨던 자들을 그가 부르셨으며, 그가 의롭게 하신 자들을, 그는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택정한 자의 영광의 소망은 언약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은 모든 것 가운데 명령된 은혜의 언약과 보증으로부터 생긴다 (삼하 23:5). 은혜의 언약은 그 많은 축복 가운데 기쁨과 영광의 영원한 기업을 포함하며, 모든 믿는 자를 그것을 소유할 것을 확신한다 (엡 1:10-14). 그것은 은혜의 언약이라 불리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대가 없는 은혜로부터 일어나고 기초 하였으며 은혜에 속한 모든 축복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 내에서 그것은 평강의 언약이라 부르는데 (겔 37:26), 그것의 마침을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한 평강과 화목 가운데 하나님께 죄인들의 회복 됨이 있기 때문이다 (말 2:5). 그리고 같은 이유로 생명의 언약이라 불린다. 그것은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 완전한 성취를 본다.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명령되고 보증된 언약이다. 우리 영적이고 영원한 안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언약 안에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 공급되고 보증되었다 (엡 1:3-9). 언약의 축복은 우리 구원에 포함된 모든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안에서 우리 영적 행복에 관련한 모든 것을 내포하고 보증한다.

이 은혜의 언약은 우리의 모든 갈망이다. 언약 안에서 공급되고 보증되지 않고 우리 혼의 영원한 행복과 영광을 위하여 선하고 바랄만한 것은 없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영광의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서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진 은혜의 언약으로부터 생긴다.

확실한 소망

우리 언약의 수장과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보증 약속과 실행은 우리에게 우리 영광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확신시킨다.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그의 택하신 자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 모두는 우리에게 언약의 보증인인 그리스도에 의해 확실하게 되었다 (히 7:22-25).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은혜의 언약 가운데 보증이니 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는 우리에게 시간 가운데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원 가운데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실 것을 스스로 맹세하셨다. 그는 믿음 안에서 그분께 우리를 데려가고 땅 위의 그분의 교회의 양떼 안으로 데려 갈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분의 아버지의 면전에 우리를 두시려 그분 자신께 데려 가시려 맹세하셨다 (요 10:16).

유다가 그의 아버지, 야곱 앞에 베냐민을 데려가서 세우기를 약속하고, 영원히 책임을 지기로 약속하면서 베냐민의 보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창 43:9),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한 보증인이 되셨고 종말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에 데려가시기로 약속하셨다.

우리의 위대한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려 그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와 긍휼과 은혜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속박 아래 두셨다. 따라서 시간의 총만한 가운데 그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위하여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 앞에 여시기 위하여 세상 안으로 오셨다. 그가 오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더욱 더 풍성하게 가지게 되었다 (요 10:10. 그는 아담이 무죄 가운데 가졌거나 천사들이 하늘에서 가졌던 것보다 더 뛰어나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는 그분 자신으로 영광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 우리 보증인은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는 우리 구원의 대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며 아버지께 보이실 것이며, “보소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라고 말하실 것이다 (히 2:10-13). 이것이 사도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히 7:25).

선주자에 의해 보증된 소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주자로 영광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보다 더 보증 받았다 (히 6:20). 사망으로부터 그분의 부활 후에,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머리와 대표로서, 저주의 나무 위에서 그가 대신하여 고통을 받았고, 피 흘렸으며, 죽었던 자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오르셨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는 우리 선주자로서 하늘에 들어가셨고, 우리의 이름 안에 그 소유를 취하셨으며,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신다 (히 9:24). 영광 가운데 우리 구속자가 우리의 대표가 되심은 너무도 실제적인 대표자이고 너무도 절대적인 보증인이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 속한 처소에 그분과 함께 자리를 한 것이라고 한다 (엡 2:6).

그리스도의 기도로 보증된 소망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장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시는 기도와 예비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확신시킨다. 우리 구원자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시려 하늘로 가셨다 (요 14:2). 그는, “내 아버지의 집에 많은 집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 부유한 주거지, 평강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곳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에게 말했을 것이다.” 만약 하늘 영광이 꿈이나 헛된 환상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짓 소망으로 너희를 속이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모든 영광의 구원자는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 그분의 사랑스러운 친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가셨다. 그렇다, 하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으로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것, 즉 그리스도의 육신의 드림과 피의 속량과 은혜로운 증보로 인한 새로운 준비를 요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택 받은 죄인들을

위한 처소를 하늘에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그분이 하늘에서 행하시는 특별한 일이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 예비의 한 가지 위대한 부분은 우리를 대신한 우리 구원자께서 하나님께 하시는 중보이다. 그리스도, 우리 위대한 대 제사장은 그분의 택정 받고 구속된 백성 대신에 하나님께 중보를 하고 계신다. 그분은 아직 믿지 않는 자의 구원과 (히 7:25) 죄를 범한 그분의 백성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게 하며 (요일 2:1-2), 그분의 교회와 영적 연합과 (요 17:21), 그분의 택하신 자의 보존과 (요 17:15) 그리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성도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요 17:24) 기도하고 계신다.

하늘에 있는 우리 처소가 우리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준비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에로의 집으로 데려 가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다 (요 14:3). —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며, 내 자신에게

너희를 받을 것이다.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또한 있을 것이다.”
질병은 우리를 집으로 부르는 우리의 사랑스런 자들의 목소리이다.
사망은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가 보내는 차량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떠나간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은 이미 그곳, 아버지의 집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집에 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보증된 소망

영광의 소망은 성령 하나님의 효험 있는 부르심에 의한 우리 혼
안에서 태어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마침내 그것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믿으라고 훈계하였다. 그의 훈계의 근거는,
“그러서 너도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딤후 6:12).

디모데처럼,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그분의 왕국과

영광에 부르신 분인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훈계를 받는다 (살전 2:12).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에서 부르셨던 분" (벧전 5:10)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안전하게 영광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분이 부르셨던 그 자들을, 그분은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영광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안에서 들어갈 것이다.

성령의 증표로 인하여 보증된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영광의 소망은 우리가 성령의 증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하고 생생한 소망이다 (고후 5:5; 엡 1:14). 성령은 증표와 계약금과 첫 할부금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 기업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거둢남 가운데 주셨다. 우리의 완전한 구속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날까지 그분에 의해 인침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 우리 기업의 증표를 거둢남 안에서 주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분은 또한 영화롭게 하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업의 풍성함을 주실 것이다. 성령,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권능에 의한 영원한 생명은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 속으로 솟아나는 하나님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수의 우물이다 (요 4:14).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을 위한 갈망으로 보증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광을 위한 갈망을 가진 믿는 자의 마음을 채운다 (시 27:4). 이 육신의 장막 가운데 우리는 신음하면,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완전함으로 옷 입기를 정말로 갈망하면서, 사망이 생명으로 삼켜지게 될 것이다 (고후 5:1-4).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며,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빌 1:23). 우리는 이 연약하고 죄로 충만한 육신의 틀 위에 있는 채로 가기 보다 몸으로부터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택하게 된다 (고후 5:8).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은 그들이 건축자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성으로 갈 것임을 알면서 기쁨 가운데 죽는다 (히 11:3).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분의 결정으로 생명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으므로 그분께서 삶의 마지막에 그들을 영광으로 받으실 것임을 확신한다 (시 73:24). —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고후 5:1).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순교자들까지,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이었으므로, 그것을 보았고 이 세상을 떠나 그 곳으로 갔던 것처럼, “영광! 영광! 영광!”이라고 외쳤는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그런 사람들은 광적인 몽상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가있는 곳에 대한 영광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떠나는 친구들을 부러움으로 바라본다.

믿는 자의 “영광의 소망”은 성경 안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는 문제이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즉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실로 그들의 사망의 순간부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천사들이 그들의 일을 하려 기다리면서 그들의 사망의 침상 주변에 서 있다. 그리고 그 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자 마자, 데리고 공중의 영역을 통하여 하늘 기쁨 속으로 데려간다.” (John Gill). 나사로는 그가 죽자마자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 안으로 데려가졌다 (눅 16:22). 누우친 도둑은, 그리스도 옆에서 죽은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으로 데려가졌다 (눅 23:43).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믿는 자는 지금 하늘에 있다. 그리고 당신과 나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 났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죽자마자,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4. 하늘 영광의 형상

계시록 21:1-27

계시록 21 장을 읽어보라. 그 장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현재와 영원한 상태를 나타내는 몇 가지 성경 형상들을 제시한다. 이 공과에서 그 장의 비밀에 접근하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다. 그 과업의 불가능함을 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스물일곱 절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를 기다리는 하늘 영광의 어떤 형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일련의 공과 안에서 나는, 사람보다 천사에게 더 합당한 과업 혹은, 나 자신과 같이 연약하고 죄로 충만하며 죽을 수 밖에 없는 피조물을 위해서보다 하늘에 있는 영화롭게 된 성도들 가운데 하나를 위한 과업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서술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믿기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위에 두셨던 과업이고 그 안에서 내가 철저히 기뻐할 과업이다. 하늘 영광과 그것의 위대함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그것을 서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된 형용사들에 따라 형성되었음이 분명하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광이다 (고전 2:9).

하늘의 영광은 "보이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후 4:18), 그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의 보증된 소망을 바라고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땅위에 아무도 그것을 본적이 없다 (히 11:1 을 보라.). 이곳의 아무도 믿음으로 밖에는 하늘을 잠깐 보고 보았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산다 (롬 8:24-25).

그것은 장래 영광이다 (롬 8:18; 요일 3:2).

우리보다 먼저 간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모두 여전히 계시되어야 할 장래 일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경배 가운데 약간 하늘에 대한 예지나 "땅 위에서 하늘"에 대하여 조금 맛보는 체험한 것을 상상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근접하지 않았다. 하늘의 영광은 여전히 계시되어야 할 영광이다.

그것은 비교할 바 없는 영광이다 (롬 8:18).

이 세상에는 하늘 영광에 비교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땅에 속한 명예, 부, 쾌락, 그리고 대단함은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에 비교할 때 허영심의 사소하고 공허한 것들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들조차, 그분께 대한 섬김의 순수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에 비교하면 가치가 없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섬김이 하늘의 영광에 비교될 수 없다면, 그것들은 분명 하늘에 속한 가치가 있을 없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순수한

원칙으로부터 행하는 가장 좋은 것들은 하늘 영광에 비교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고통은 "가벼운 고통"이다 - 하늘은 많은 영광이다. 우리 고통은 순간의 것이다 - 하늘 영광은 영원하다. 믿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돕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견디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선한 것을 즐거이 없애게 하며, 하늘에서 그들이 더 좋은 것과 견딜 수 있는 일을 갖게 됨을 알면서,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풍성한 부로 만드는 것은 하늘 영광에 대한 기대이다 (히 11:25-26; 10:34).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에 비교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땅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에 두도록 하자 (골 3:1-4; 마 6:19-34).

나의 쉼이 하늘에 있으니, 나의 쉼이 여기 없으니,
그러면 내가 왜 시험이 가까울 때 떨어야 할까?

조용히 하라, 내 어둠의 영아, 더 못한 것이 올 수 있노라

하지만 너의 여정을 줄이고, 그리고 네 집으로 어서 가라.

내 낙원을 찾음이 나를 위함이 아니니,
혹 이런 지역에서 내 소망을 세울까;
손으로 쌓지 않은 성을 찾으니,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나라를 위하여 심노라.

고통이 나를 억누르나, 멸할 수 없노라,
그의 사랑의 단 한번 눈길에 그것들을 모두 기쁨으로 바꾸니;
참담한 눈물이 흐르네, 그가 그것들에 미소 짓는다면,
해 아래 이슬처럼,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자라라.

의심과, 그리고 위험아 내 진로에 대항하라,
그것은 오직 천국을 더 달콤하고 가깝게 하네,
기쁨이여 오라, 아니면 슬픔이여 오라, 무슨일이 생기든,
내 하나님과 한 시간이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지을 것이라.

내 등의 짐을 지고, 내 손에 지팡이를 짚고,
대적의 땅을 통하여 급히 나아가네;
길은 비록 험할지라도, 길지 않을 것이라;
소망으로 평탄케 하고 찬송으로 격려하리라.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다 (벧전 5:10).

이 세상의 영광은 아주 속히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오게 될 세상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이 세상의 영광은 사라질 것이다. 그 세상의 영광은 마침이다. 이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이다. 그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다. 하늘의 영광은 변치 않고 영원한 무게의 영광이다. 다른 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

- 사라져 버리지 않을 영광의 왕관.
- 영원한 기업.
-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가운데 영원한 집.
- 영존할 왕국.

-
- 영원히 거하고 지속될 성.

“왕국들과 왕관들과 왕위들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 (이 없어졌을 때), 이것은 영원히 견딜 것이며,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리로 부르실 것이고 그들을 소유하실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이다.” (John Gill).

여기 하늘의 영광이 있다 - 그것은 주와 영원할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영원하다!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라, 나는 다만 지나갈 것이라;
이곳의 이방인인 나는 계속가야 하니, 내 집이 이제 보이네:

“주와 영원히 있으리!” 아멘! 그리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불멸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천국은 영광의 처소이다 (요 14:3).

우리 주께서, “내가 가서 너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 하늘은 영광스런 상태와 조건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영광의 처소, 그리스도께서 보내진 처소, 실제의 몸 가운데 영광스런 보좌위에 앉아계신 처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이다.

하늘이라 부르는 그 처소의 영광은 많은 놀라운 형상과 사람들에게 알려진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부요하며 가치 있는 것들로 부터 취해진 형상으로 성경 안에서 제시된다. 하늘을 묘사하기 위하여 성경 안에서 사용된 형상은 그 축어적 형태, 크기, 모양을 묘사하기 위하여 제시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아는데, 바울이 어떤 말로도 그가 거기서 보았던 것과 들었던 것을 묘사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고후 12:1-4).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들에 의해 하늘에 대하여 그려진 그 형상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탁월한 우월과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늘 영광의 장관과 위대함을 보여 주기 위하여 주어진 다섯 가지 형상들이 여기 있다.

하늘은 집으로 제시된다 (고후 5:1).

그것은 집이지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집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집은 하나님의 건축, “손으로 지은 바가 아니라, 하늘 가운데 영원한 집”이다.

이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그 건축자와 제조자가 하나님인 집이다. 그 하늘의 집 안에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경배로 그 자리에 놓여진 단 하나의 벽돌이나 목재 한 조각도 없다.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은 은혜만으로 된 건축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행위가 하늘에 있는 그들의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계 14:13).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 에 앞서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의 건축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이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졌다. 그 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다. 그 소유권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바 되었다. 그 문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으로 열렸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웅장한 성전을 지었다. 그것이 파괴 되었을 때, 스킷바벨은 그것을 재건 하였으며, 헤롯이 그것을 보수하였다. 그것은 사람의 눈에 웅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조였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돌 하나도 그곳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손으로 지은 거룩한 곳이었다. 그러나 오직 일시적이고 예표적 집이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은 진실로 거룩한 곳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건축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고, 주권적이며, 효험 있는 은혜의 역사이다.

이 집은 하늘 가운데 있다 (고후 5:2).

진흙으로 된 우리 현재 집,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육신은 땅의 흙에 그 기초가 있다. 따라서, 그것들은 곧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고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은 영원하다. 그것은 낡아지지도, 허물어지지도, 보수할 필요도 없이 서 있을 것이다. 사람은 땅 위에 그들의 집을 짓고 그것이 영원할 것으로 헛되이 상상한다 (시 49:11). 그러나 시간 가운데 그것들은 낡아지고, 원소로 허물어지고, 지진으로 무너지며, 불로 타버리고, 그들의 적들에 의해 파괴된다. 영광스런 위 하늘의 집은 영원히 거한다. 그 모든 방들은 "영원한 처소"라 불린다 (눅 16:9).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집을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 부르셨다 (요 14:2).

그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집이다. 그것이 이를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은 이를 더 애정어리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으로 만든다. 우리 아버지의 집 안에는 많은 처소들이 있다. 이 한 조각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이리저리 굴러라 - 하늘은 "아버지의 집"으로

부른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으셨다. 우리 아버지께서 거기
거하신다. 그곳은 그분께서 모든 자녀들이 있도록 하실 처소이다.
우리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며, 넓직하고, 장엄하고, 잘 보존된
집이며, "많은 처소들"의 장소이다. 이 처소들은 왕의 아들들을 위한
거처이다. 그것들은 안식과 기쁨과 평강의 처소들이며,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있다! 영원한 생명으로 명받은 많은 자를 위한 많은
곳이다 -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의롭게 된 많은 자들 - 죄들의
용서를 위하여 그분의 피가 흘려진 많은 자들 - 그리고 그가
영광으로 데려가실 많은 아들들 (행 13:48; 롬 5:19; 마 26:28; 히
2:10).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중 전능한 은혜로 택함받고,
구속받고, 부름받은 자로부터 온 그 사람들의 모든 셀 수 없는 많은
주인들을 위한 아버지의 집 안에는 충분한 공간과 충분한 공급이
있다.

하늘 영광은 기업이라 부른다 (행 20:32; 엡 1:11; 골 1:12; 롬 8:17).

가나안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비뽑기로 나누어준 기업이었으므로, 하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안배하셨던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다 (잠 16:33). 가나안이 하늘의 예표이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결코 데려올 수 없었다는 것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모세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호수아, 우리 구원자, 우리 구원의 대장에 의해 하늘로 데려가졌다.

기업은 대가 없는 선물이다. 그것은 수고나 열심으로 얻을 수 없다. 그것은 가치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 하늘 영광 안에 있는 우리 기업은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주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순수하고,

대가 없고,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은사이다. 이것들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라.

하늘 영광은 어떤 부분이나 정도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 천연적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헛되게 상상한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한 상상은 그들을 속인다. 영원한 생명은 그 약속 가운데, 그 수여 가운데, 그 보존 가운데, 그리고 그 영원한 누림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이다 (롬 6:23). 하늘 영광은 사람에 의해 살 수 없다. 만약 사람이 그것을 위하여 모든 그의 본질을 주어야 한다면, 그 제공된 대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심하게 멸시되었을 것이다. 하늘 영광은 영원전부터 우리 하늘의 아버지에 의해 택함 받은 죄인들에게 증여된 기쁨이다. 그것은 그분의 택하신 자에게 그 왕국을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선하신 기쁨이다. 그는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의 귀한 아들, 유언자의 희생적인 죽음 덕을 통하여, 그로 인해, 그 위의 언약에 의해 그것을 주신다 (히 9:15-17).

이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속하였다 (롬 8:17). 그것은 그의 종이나 천사들이나 (히 1:14), 속박된 여인 (갈 4:30)의 자녀들과 자기의와 율법주의와 행위와 자유의지 종교인들에게 속하지 않았으며, 오직 영원 가운데 양자로 미리 예정되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속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히 속한 기업이다. 하늘에는 영광의 등급이 없다. 하늘 가나안에는 뒷쪽 거주지가 없다! 새 예루살렘에는 이등급 시민이 없다!

우리의 하늘에 속한 기업은 부패할 수 없다. 모든 땅의 기업은 부패할 수 있고, 변할 것들이며, 불안정하다. 이 기업은 우리나라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부패될 수 없다. 그것은 조금도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만큼 확실하다.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은 기업이다 (히 9:15). 그것은 하늘에 보존되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하늘에 불변하고 틀림없이 보존된 기업이다 (벧전 1:4).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기업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업을 위하여 우리를 지키신다.

하늘의 다른 친근한 형상은 성의 형상이다 (히 11:10).

하늘은 그 건축자와 제작자가 하나님이신 크고 부요하며 넓직하고 충분히 거하는 성이다. 다른 형상들처럼, 이 말, "성"은 비유적인 말로, 육체적이고 땅에 속하고 세속적인 어떤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늘은 이 땅 위에 어떤 것에서도 무한히 넘어선 성이다.

그것은 "기초들이 있는 성이다." 하나의 기초가 아니라, 많은 기초, 따라서 그것은 확고하고 움직일 수 없고, 흔들리거나, 던져지거나, 허물어질 수 없다. 이 성, 이 영광의 거주지가 세워진 기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은혜의 변할 수 없는 언약, 그리고 시대의 복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다.

이 성의 영광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이해될 수도 묘사될 수도 없다 (고후 12:4). 사도 요한에 의해 제시된 새 예루살렘의 묘사는 과장이다. 그것은 정확하게는 그렇게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상을 무시한다. 요한은 그의 이상 가운데 벽옥으로 된 벽, 진주문, 유리처럼 투명한 정금길로 성을 보았다! 놀라운 영적 부와, 풍성함과, 기쁨의 하늘의 처소임에 분명하다! 놀라운 영적 뛰어남과 완벽함의 처소이다! 세상의 가장 비싼 보물과 보석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것들은 가치가 없는, 절대적 가치가 없다! 그 세상 안에서, 죄가 없는 곳, 탐욕이 없고, 탐함도 없고, 야심도 없다. 그 영광의 땅 가운데, 죄가 없는 그곳에서, 물질적인 것들은 쓸모 있는 숙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 위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벽옥은 하나님의 교회를 둘러싸기 위한 벽에 지나지 않는다. 진주는 하나님의 왕국을 열기 위한 문에 지나지 않는다. 황금은 하나님의 보좌로 사람들이 걸어가기 위한 포장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 은혜롭게 우리에게 이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가르치시기를!

하늘 영광은 우리에게 왕국으로 제시된다.

집은 크다. 기업은 좀더 큰 어떤 것이다. 성은 여전히 더 큰 어떤 것이다. 그러나 영감을 받은 저자는, 그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더욱 넓은 생각을 사용하여, 하늘 영광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을 위하여 늘리는 것 같다. 무엇이 하늘인가? 그것은 영광스러운 집이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집 이상이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그렇다, 그것은 기업 이상이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성이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성 이상이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왕국이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왕들이다. 우리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갖고 있다 (히 12:28). 육체적 예식 가운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왕국이다 (롬 14:17). 그리고 우리는 다른 왕국, 세상의 기초가 놓을 때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의 상속자들이다 (마 25:35). 그것은 영광의 왕국이다 (살전 2:12). 그것은 영원한 왕국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와 권능으로 이 왕국으로

부름 받았고 태어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 이 왕국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맞추어졌다.

우리가 상속자로 된 영광의 왕국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모든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 관 씌워지고 존귀함을 받을 곳이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실함과 헌신에 주는 존귀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과 모든 그의 거룩한 천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난 은혜의 완벽함이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구속 받은 죄인들을 존귀히 여기고 관씌울 것이다 (엡 1:10; 2:7; 계 21:9). (예레미야 33:16 을 보라.) 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관 씌우실 것이다.

생명의 관 (약 1:12).

의의 관 (딤후 4:8).

사라지지 않을 영광의 관 (고전 9:25).

그리고 우리 위대한 하나님과 구원자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 안에 왕들로 보좌 위에 앉히실 것이다 (계 3:21).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타락한 인성의 상태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타락한 상태에서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삼상 2:8). 그곳,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물려받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광이다!

하늘 영광은 무한하고, 영원하며, 거룩한 기쁨의 형상 안에 있다 (시 16:11).

하늘은 집이다. 하늘은 기업이다. 하늘은 성이다. 하늘은 왕국이다. 그리고 하늘은 영광의 생명과 기쁨의 충만함과 영원한 즐거움의 처소이다. 새롭게 된 생각을 즐겁게 하고, 거룩하게 된 마음에 만족하며, 거듭난 혼에 갈망이 있는 모든 것은 하늘의 영광의 땅 가운데 모든 영원함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그분의 식탁에 앉아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순수한 생명수의 강을 마실 것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아무 눈도 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 아무 귀도 듣지 않았던 것을 듣게 될 것이며, 사람의 마음 속에 결코 들어가지 않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눈은 땅 위의 많은 것들을 아주 광대한 환상으로 보았으며, 그것을 매우 즐겼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게 될 것처럼 그런 대상들을 결코 보지 않았다. 사람의 귀로는 매우 즐겁게 하는 소리와 아주 즐거운 음악과 목소리와 악기소리를 듣고 즐거워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듣게 될 그런 음악은 결코 듣지 않았다. 위에 있는 세상에서 누리게 될 것과 같은 그런 것을 결코 상상하지 않았다." (John Gill)

하늘 영광으로 가는 길의 문은 곧다. 그 길은 좁다. 우리는 그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고, 의의 길이며, 확신의 길이다. 아무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기다리는 영광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자. 죄인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길 가운데 있기를 분명히 하자. 우리의 부름과 택정하심을 확실하게 하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라.

5. 하늘: 만족의 장소

시편 17:15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늘은 만족스럽고 완전하고 완벽하며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장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늘에서 완전히 만족될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날 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을 때, 현재 하늘과 땅이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의 귀한 아들의 형상으로 모두 변화되었을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완전하게 정복되었을 때, “그러면 끝이 오며,” 그리스도께서 구속 받은 자의 전체 무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고전 15:24-28).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것 가운데 계시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원을 위하여 모든 탁월함을 소유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해 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은 그의 혼의 수고에 대하여 볼 것이며 만족해 하실 것이다 (사 53:10-11).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시도록 되었으며, 그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다. 그가 죄가 되도록 되셨을 때, 그는 모든 끔찍하고 불명예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의 대속물로서 겪으셨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의 의와 의로운 분이 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은 예언자 이사야에 의해 “그의 혼의 수고”라 불렸다. 우리 구원자의 고통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분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확신시킨다. “그가 그 혼의 수고에 대해 볼 것이요, 만족히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를 아무 의미 없이 흘리지 않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마지막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의도와 계획과 설계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만족 될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게 하였던 그의 거룩한 마음의 모든 갈망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하에 그가 대신하여 고통 받고, 피 흘리고, 죽은 자들인 모든 죄인은 모든 죄를 철저히 씻김 받을 것이다. 그가 구원하기로 인계 받은 모든 사람은 완벽한 의로움 안에서 그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전체 무리는, 그가 그들을 위하여 은혜의 언약 가운데 보증인이 되었으며, 그분에 의해 그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이 그의 아버지께 드려질 것이다.

믿는 자가 만족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 영원한 집에서,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믿는 자의 마음의 모든 갈망은 완전히 만족될 것이다 (시 17:15). 아무것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족을 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영벌에 대한 더 확실한 표적은 없다. 나는 “세상 사람들, 이 생에서 그들의 운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땅의 보화로 채우고 만족하게 하신 자들을 동정한다 (시 17:14). 새롭게 된 혼은 이 세상에서 만족할 가능성이 없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선하시며 그분이 하시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매일의 섭리로 채워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도달할 때까지 만족될 수 없다. 그러나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늘에서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것이다. “내게 있어서, 의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볼 것이라. 내가 깨어날 때, 당신을 닮음으로 내가 만족할 것이라.” 나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족하는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의 말이 내포한다고 취하겠다. 그 만족은 의 안에서 구원자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사망과 부활 사이에 하늘에서 발견되며, 그 만족은 우리가 우리 구속자와 닮음 안에서 깨어날 때인 몸의 부활 후에 하늘에서 보게 될 것이다.

사망 가운데 믿는 자는 즉시 만족한다

믿는 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하늘에 있는 그들의 혼으로 만족한다. 그것을 강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이것을 강조한다. 우리 시대에 교리에 있어서 정동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많은 자들은 혼의 잠드는 것에 대한 재림주의자들의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지금 그 사악한 교리의 모든 결과를 토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사망의 시간 가운데 있고 그들의 떠나간 사랑하는 자들과 관련한 위로를 흠쳐가는 교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부당한 귀속을 떠올리게 하는 교리이다. 더욱 더 중요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모순된 교리이다.

이 공과들에서 우리가 반복하여 본 것처럼, 믿는 자들의 혼은 그들의 몸과 분리되자마자 즉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고후 5:8; 빌 1:23), 축복 받은 기쁨과 만족의 상태 가운데 있다.

그것은 사망과 부활 사이의 이런 만족한 중간 상태에 있으며, 그것은 다윗이 가리켰던, “내게 있어, 의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할 때이다.

내가 나의 마지막 숨을 쉬고 사망 가운데 나의 육신의 눈이 감기자마자,
나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며, 의 안에서 영원히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이 여섯 가지들 가운데 우리 혼에 대하여 완전한 만족을 보게 될 것이다.

1.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시 16:11).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과 확신보다 더 믿는 자에게 바람직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 우리는 모세와 함께 그분의 임재가 없는 그 어떤 곳에도 가지 않을 것을 선택하였다 (출

33:15). 공예배 의식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한 우리 주의 임재이다 (마 18:20). 하나님의 임재는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한다 (사 43:1-5). 그리고 우리 주의 임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섬김을 고무한다 (마 28:20). 땅 위에 있는 그분의 교회와 함께하는 그분의 임재는 그분의 성전에서의 하루를 다른 어떤 곳에서 보내는 천 일보다 더 바람직하게 만든다. 그분의 임재는 땅 위에 있는 그분의 장막을 호감 가는 장막으로 만든다 (시 84:1, 2, 10).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여기에서조차도 만족을 찾으며, 우리의 가장 높은 만족은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임재의 체현 가운데 있다. 하늘에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는 그분과 떨어지지 않을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기쁘고 만족스러울지. 삼일 하나님과 영구히 방해 받지 않는 연합 안으로 들어간 하늘에 있는 그들은 실로 복되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뜻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방해 받지 않는 만족을 누림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연합하심"의 충만한 체험

가운데 그들이 누리는 교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그의 만찬에 함께 자리하고, 그의 연회장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은혜의 달콤한 감소유 냄새를 맡고, 그들 위에 그의 사랑의 깃발을 걸도록 하는 것처럼 믿는 죄인들의 마음에 그렇게 기쁜 것은 모든 세상 가운데 없다 (아가 2:4-6). 진짜 예배처럼 영화롭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없다! 그러나 그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일지 상상해 보라! 얼마나 만족스럽겠는가! 얼마나 기쁘겠는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2. 우리가 하늘이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갈망하는 모든 자는 만족할 것인데, 우리가 우리 구속자와 완벽하게 일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그를 본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주의 영으로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동일한 형상으로 변했다." (고후 3:18).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이다 (요일 3:2).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예정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롬 8:29). 하늘에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완벽하게 될 것이다. 우리 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은 우리의 전적으로 영화로우신 구원자의 완벽한 반영이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된 혼의 모든 기능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켜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해 안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생각의 사고들은 언제나 그분을 향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의지는 전적으로 그분의 의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의지로 화할 것이다. 우리 마음의 애착은 그리스도와 위에 있는 것들에 두게 될 것이다. 우리 기억들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들로 완전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갖게 될 것이다. John Gill 은, "혼 안에, 그 감정과 생각과 행동 안에 아무것도 비정상적이고 불쾌한 것이 없을 것이다."고 기록했다.

-
3. 우리의 혼은 하늘에서의 대화 가운데 만족함을 발견할 것이다. 하늘은 많은 이야기와 대화의 장소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람을 완전케 만든 의의 영과 모두 대화를 계속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 상태에서 소통할지 나는 모른다. 하늘의 언어가 무엇인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자유롭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하여 소통할 것이다.
4. 우리 혼은 하늘에서 완전한 지식으로 만족해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전 13:12).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내려놓자 마자, 영적 지식 안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 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직무와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모든 그분의 존재와 은혜로운 운행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우리를 위한 공활에 속한 모든 비밀스러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 복잡하게 얽힌

세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서로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배울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는 동안일지라도, 우리의 지식은 매우 분명하고 순수할 것이다. 그것은 죄와 불신으로 오염되지 않을 것이다!

5. 우리는 완벽한 거룩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내게 있어, 나는 의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그 복된 상태에서 우리 혼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죄의식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서 제거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의 공해와 다시 죄지움에 대한 두려움과 죄의 육신과 죄의 존재와 죄의 모든 결과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하늘에는 죄에 대한 더 이상의 슬픔조차 없을 것이다! 그 기쁜 날은 더이상 죄로 신음하고 고통 받지 않을 때 충분히 속히 올 수 없다. 하늘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고, 비난할 수 없이 흠이나 오점이 없이 될 것이다. 우리는 죄로 가득한 생각이나 순수하지 않은 욕망이나, 악한 성향이나, 사악한 의지를 갖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죄로부터의 거룩과

자유가 어떤 정도이든 우리 자신의 자유 의지나 선한 행위의 결과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만의 결과가 될 것이다.

6.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는 완벽하고 영원한 평강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시 37:37). 평강! 달콤한 평강! 아무것도 평강보다 더 바람직하고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완벽한 평강은 이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기쁨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갖게 될 그 평강은 무엇이 될 것인가? (사 57:1-2; 마 25:21 을 보라). 사망한 직후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의 가운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께 닮아가며, 하늘에 속한 대화 안에서, 완벽한 지식 안에서, 완벽한 거룩함과 완벽한 평강 안에서 완벽한 만족을 찾게 된다. 하지만, 하늘 영광의 다른, 보다 높은 단계가 있다.

그들의 부활 안에서 믿는 자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 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부활 가운데 하늘 영광 가운데 완벽한 만족을 찾게 될 것이다. 다윗은 몸의 부활을, “내가 당신을 닮고 깨어날 때, 내가 만족할 것이다.”라고 말할 때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종종 혼의 구원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은 백성의 구원, 몸과 혼 모두의 부활을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부활 때 무덤으로부터 구속하실 때까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롬 8:23; 고전 1:30; 엡 1:14; 4:30; 고전 15:41-58). 부활 때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혼 위에 입혀질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에 입혀질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모든 몸이 영광 안으로 구원 받고 모여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만족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혼의 수고는 만족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의 갈망은 만족되지 않을 것이다.

이 몸은 부패 속에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죄로 타락한 역겨운 몸이다. 그것은 사망의 부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썩고 부패할 땅의 먼지 속에서 부패 속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똑같은 몸이 더이상 죄와 질병과 사망으로
부패하지 않을 곳, 부패함이 없는 영광에 일어날 것이다. "이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며, 이 죽을 목숨이 불멸 위에 놓일
것이다." 그러면 사망이 승리 안으로 삼켜질 것이다!

이 몸은 불명예 속에 흙 속에 심겨질 것이다. 그에 대한 어떤
고귀하고 호소하며 기쁘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속히
사라질 것이다. 곧 이 몸은 땅의 차갑고 어두운 뗏장 아래 벌레
무리를 위해서만 합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몸은 영광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 이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처럼 형태를 취하고, 아름다움과 어울림의 완전함 가운데
무덤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태양처럼 빛날 것이다.

이 육신의 몸은 나약함 가운데 땅 속에 묻힐 것이다. 곧 그 몸은
힘과 활기를 잃을 것이다. 마침내 그 몸은 무덤 속에 운구자 들에
의해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권능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
몸은 힘과 합당함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낱아짐 이나 약해짐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으며, 이곳 저속을 속히 움직일 수 있을 것이며, 심지어 땅에서 하늘을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예배에 영원히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약함과 낡아짐이 없을 것이다. 부활 가운데 우리는 결코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다”고 불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마 26:41).

이 몸은 땅 속에 천연적인 몸을 심게 될 것이다. 죄를 이유로 그 몸은 동물의 먹이로 지탱될 몸과 같은 동물이다. 그리고 그 몸은 동물이 죽는 것처럼 죽게될 것이다 (전 3:19-20).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영원히, 결코 다시 죽지 않을 것 같음을 내재한 영적 몸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은 더이상 지금처럼 우리 혼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몸은 영적 섬김 가운데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것들은 영적 책무에 알맞게 될 것이며 영적 경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 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몸이 흙에서 일어나고 우리 혼과 연합될 때, 우리 온 존재의 완전함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하늘에 속한 상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만족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그것의 어떤 의미를 주려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복되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요 19:25-27).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보며 걷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우리는 의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계신 그대로 그분을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고후 5:7; 시 17:15; 고전 13:12; 요일 3:2).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그분의 존재의 본질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이해하며 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하고 이해가 불가능한 영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함과 영광의 분명하고 구름에 가리우지 않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적으로 신경의 모든 충만을 보게 될 것이다 (골 2:9).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행하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어떠하심과 행하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들을,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과 행하신 모든 것 가운데 성령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 육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리고 내가 만족할 것이라!”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모든 거룩한 천사를 볼 것이다.

우리는 천사들의 빛나는 형태와 신분과 질서들 가운데 구원의 상속자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한 자들에게 사역하도록 보낸 영들을 사역하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만들어진 그 보좌들과 통치와 주권과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 함께 찬송하고 기뻐 소리쳤던 새벽 별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찬송하고 그분의 승천 시 그분과 함께 있던 빛나는 그 영들을 보게

될 것이며, 의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러 오실 때 그분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Martin Luther 가 죽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알아볼까요?” Luther 는, “비록 전에 본적이 없었지만, 아담이 하와가 그의 뼈 중의 뼈이고 그의 살 중의 살임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늘에서 서로를 알게 될 것입니다.”고 대답했다. 사도들이 비록 전에 전혀 본적이 없었고 그들의 초상화나 묘사조차 본적이 없지만, 모세와 엘리야를 산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알 것이다. 하늘에서 우리는 땅 위에서 부모, 아내, 남편, 자녀, 친구들을 알았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늘에는 어떤 낯선 자도 없을 것이다. 만약 하늘의 사귀 가운데 낯선 자가 있었다면, 자유와 기쁨이 크게 방해 받을 것이다. 낯선자 주변에서 누가 자유로운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몸이 영광에 올려질 때 우리는 서로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고 알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름다움 안에 있는 신부, 어린양의 아내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믿는 자를 보고 알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모두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중히 여길 것이다.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는 모든 선한 것을 소유하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계 22:4-5).

죄로부터 완전한 구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 성가시고 포악하며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출, 모든 불행으로부터 자유, 골칫거리와 그 원인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는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더이상 외적 싸움이나 내적 공포가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의심과 불안과 더 이상의 불신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비탄과 탄식은 멀리 도망갈 것이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의 영원한 쓰임 가운데 그들의 부활 영광 안에서 만족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든 대화가 거룩한 대화가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구한 경배와 찬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영원한 완벽함을 누릴 것이다. 이 하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하고 대가 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만약 우리가 올 세상 안에서 그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다면, 지금 땅 위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벧후 3:11, 14; 골 3:1-4). 그런 영광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궁극적인 희생에 대한 영감을 우리 가운데 줄 것이다.

6.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4:12-13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얼마나 종종 우리가 죽어가는 친구와 친척들의 침상 옆에 서 있었는지. 우리 마음은 우리에게 소중한 어떤 사람을 잃는 것으로 아프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신실한 자의 사랑과 교제와 조력을 그리워 할 다른 사람들로 상처받는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갈 것을 알고, 그들이 그들의 구원자의 품 안에서 잠들 것을 알기 때문에 죄와 슬픔의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한다.

요한이 하늘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앞에 그런 그림이 없었다. 요한에게는 그의 생각 속에서 괴로운 상황 속에서 순교자로 죽는 사람들의 그림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였고 짐승의 표를 그들의 이마나 그들의 오른손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의 그림과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대한 그림이 그의 앞에 있었다. 그는, 지긋지긋한 지하감옥 침상 위에서 죽었던 자들, 말뚝에서 불태워졌던 자들, Piedmont 계곡에서 익사한 재침례주의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고문을 당했던 순교자들에 대하여,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한다.

C. H. Spurgeon 은 그 문제를 미화하여 말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Piedmont 계곡의 눈 속이나 프랑스의 평평한 평원 어디에서든,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간증으로 칼이나 기근, 불이나 살육당해 죽었다...이 음성은

삼층천으로부터 나오는 소리로 들린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의 성도들의 죽음이다.' (시 116:15)."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영원한 축복의 상태 속으로 들어갔다. 믿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 귀하며 그에게 복되다. 믿는 자가 언제 죽고, 어디에서 죽으며, 어떤 방법으로 죽거나 혹은, 어떤 조건에서 죽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는 자의 죽음의 축복은 주 안에서 죽는 자이다.

한번은 Henry Mahan 목사가 어느 날 저녁 예배 전에 그의 회중 가운데 어떤 노인과 가졌던 대화와 관련하여 말한 것을 들었다. 나이든 성도가 그의 목사에게, "나는 이 세상에 온 것보다 가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생각한다. 우리는 한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고 늙은이의 죽음에 슬퍼한다. 우리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 났을 때 슬퍼해야 하고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늙은이라면 그 죽음에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우 매우 속히,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사람이 땅 위에서 약속된 시간이 없지 않은가? 그의 날들이 피고용인의 날들과 또한 같지 않은가?"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기쁨과 풍요만큼이나 염려와 괴로움을 우리 생각에서 떨쳐버리고 영원을 향한, 너무도 확실하고 아마도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릴 장래 세상에 이르는 시간의 좁은 바다 건너를 바라볼 정도로 지혜로와야 한다. 이 공과에서 믿는 자의 조망에서 바라보는 것들을 볼 것이다 -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들은 자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요한이 들었던 그 목소리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고 선포하였다. 그것은 말하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들이 죽는 순간부터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는 주 안에서 죽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누가 영원히 복을 받는지 알고 싶다. 내가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다. 그들은 누구인가?

12 절이 말해준다 -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들이 있다.”

사망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하늘은 성도들의 땅이다. 성도가 아니고선 아무도 그곳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사망이 어떤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포함된다면 우리는 땅 위에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천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다. 어떻게 죄인들이 성도들로 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역사가 죄인을 성도로 만들 수 있다.

성도는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하신 역사에 있어서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에 부족하지 않다. 은혜 외에 아무것도 죄인을 성도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지옥으로 치우친 죄인들을 하나님의 성도들로 만드는

은혜의 역사는 두 가지이다. (1.)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어야 한다. 우리 죄들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전가로 공의에 합당하고 의롭게 되어야 한다 (롬 3:21-24). 그리스도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셨다 (딤후 2:14; 히 1:3; 9:26). (2.) 우리는 거듭나야 하며, 분별되어야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며, 거듭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본성을 받아야 한다 (엡 2:1-9; 딤후 3:4-7). 만약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히 12:14).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됨으로, 믿는 자들 (성도들)은 기꺼이 매인 노예로서 그들 자신을 그분께 헌신하면서, 그들 자신을 그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주께 분별되고 자신을 헌신한다 (출 21:1-6; 고후 8:5).

사망 가운데 복받은 자들은 믿음의 인내 안에 사는 자들이다.

“성도들의 인내.” 믿는 자들은 인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삶의 고난과 사탄의 유혹과 믿음의 인내로 믿음의 시련들을 견진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참을성"을 뜻한다. 하늘에서 왕관을 받는 자들은 땅 위에서 그들의 십자가를 참아낸다. 성도들일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십자가를 직면할 때 쉽게 성도 자리를 바꾼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포기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견딘다. 그들은 인내력 있게 신실함 안에서 그들의 경주를 한다 (히 12:1). 그들은 인내력 있게 신실함 가운데 역경을 견딘다 (눅 21:19). 그들은 신실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력 있게 기다린다 (로 8:25; 히 10:36) 인내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롬 15:4).

사망 가운데 복을 받은 자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우리는 요한이, "율법에 순종함이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육체도 의롭다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는 것을 본다 (롬 3:20). 구원은 은혜로만 있다. 율법의 행위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롬 11:5-6; 갈 5:1-4). 요한은 믿는 자들이 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고 제시하지 않는데,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롬 6:15).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자이다 (요일 5:1-4). 믿는 자는 복음의 계명 (요일 3:23-24)을 지키고, 사랑과 감사의 원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 믿는 자에게 주께서 계시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던 것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사망 안에서 복받은 자들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전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약속하신다 (골 1:21-23; 히 3:6, 14; 10:38). 모든 참된 믿는 자는 믿음의 교리 (복음)와 믿음의 은혜 (마 10:22) 안에서 인내하는 자들이다. 이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라

부르는 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며 그가 그 대상인 믿음이기 때문이다.

사망 가운데 복받은 자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위대하고 본질적이며 모든 것을 말하는 점이다. 주 안에서 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살지 않았던 자들이다. 이 문제를 이제 정리하자 -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분이 당신의 모든 구원이며 모든 갈망인가? 당신은 못에 걸리 옷걸이처럼 그분께 매달려 있는가? 당신은 사랑스러운 자 안에 있는가? 당신은 생명과 같은 믿음의 연합에 의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남자와 그 여자는 실로 복되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 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 안에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결코 받아들여 질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그분께 산다는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한다 (롬 9:24). 가지가 어떤 나무에 접붙여 질 때마다, 하나는 나무에서 하나는 가지에서의 두 가지 잘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여지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음에 이르는 상처를 받으셨으며, 모든 믿는 자는 그 마음 안에서 성령의 유죄판결 가운데 잘려진다. 상처 받은 죄인은 성령에 의해 상처입은 구원자에게 묶여지며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당신에게 주신 증명과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히 11:1).

이 생각을 당신의 마음 속에서 되뇌이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신부가 그녀의 신랑의 마음 속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당신의 보증인으로 그분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대변인으로 그분의 허리에 있고, 당신의 목자로

그분의 계곡 속에 있으며, 당신의 머리로서 그분의 몸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영원히 구원 받는 것이며 절대적인 보증 안에 지켜지는 것이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누구도 그분으로부터 우리 혼을 분리할 수 없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가 인내하는 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는 안전하다.

이 말은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들, 인내 가운데 사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주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엇이 사망 가운데 있는 믿는 자들의 복인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것을 눈이 보지 않고, 귀가 듣지 않았으며, 사람의 마음이 상상하지 않았던 것을 말하는 것을 시작할 수 없다. 하늘 영광의 복은 우리의 미약한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무한하게 크다. 그러나 요한은 신형한 영감으로 사망 시에 모든 믿는 자를 기다리는 그 복의 어떤 점을 계시한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로부터 쉬게 될 것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신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죽든지간에 믿는 자는 죽음 안에서 복을 받는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넘치는 증거를 성경 안에서 갖고 있다. 욥과 바울은 사망을 앞두고 복을 받았다 (욥 19:25-27; 딤후 1:12; 4:6-8). 다윗과 스테반은 그 체험 가운데 복을 받았다 (삼하 23:5; 행 7:56-60). 실로, 은혜로 구원 받은 모든 죄인은 사망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 "몸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죽은 후에 영원히 복을 받는다 - “그 때로부터”
(고후 5:1-9).**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우리가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는 죄의 모든 잔재와 결과를 우리 뒤로하고 영원히 떠나게 될 것이다. 영광의 땅 가운데, “더 이상 눈물이 없으며, 더 이상 슬픔이 없으며, 더 이상 고통이 없음”은, 더 이상 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우리가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며,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부터 안식할 것이다.

나는 이 말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께 섬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절대 아니다. 하늘은 끝이 없는 섬김, 섬김의 장소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수고의 섬김으로부터 안식할 것이다. 하늘 영광 안에는

가르쳐야 할 무지한 자도 없으며, 비난할 잘 못한 자도 없고, 위로할 낙심도 없고, 강하게 해야 할 약함도 없으며, 반대할 잘 못도 없으며, 도와야 할 궁핍한 자들도 없고, 싸워야할 대적도 없으며, 고칠 담장도 없고, 치료할 고통도 없으며, 문안할 아픈 자들도 없고, 위로하여야 할 사별한 자들도 없고, 바로 잡아야 할 벗어난 자들도 없고, 회심해야 할 죄인들도 없으며, 마르게 할 눈물도 없는 곳일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부터 안식 할 것이다.

“수고”라고 번역된 말은 거기에 더해진 고통의 개념이 있는 말이다. 그것은, “그들은 그들의 수고의 고통으로부터 안식한다.”로 읽을 수 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어떤 정도의 고통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요한이 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부터 안식 할 것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연결된 모든 노역, 비통, 잘못, 낙심, 실망들로부터 안식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다, 그들은 그들의 수고로부터 안식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성령은 말씀하신다.”

믿는 자의 행한 일들이 영원하고 하늘에 속한 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이 우리가 미리 예정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르시고 사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변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셨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대가 없는 은사라는 것을 안다 (엡 1:11, 14).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으로서,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오늘 하늘에서 소유하고 계신 모든 영광과 복은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요 17:22). 이 하늘에 속한 복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가 얻거나, 덕을 보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다. 그것은 모두 은혜에 속한 것이다. 하지만, 본문은,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름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행위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선주자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처소를 예비하려 앞서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주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려 가셨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인정받지 않고, 다만 진노와 사망을 받는데, 우리의 최선의 행위는 오직 죄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확신이나 영접의 근거로 우리 곁에 오지 않는다. 사악한 자는 그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그들의 행위를 자랑하며 그들의 행위를 근거로 받아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청한다 (마 7:22-23). 의인은 그들이 행한 어떤 선한 행위도 의식하지 않는다 (마 25:34-40).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찮거나 사소하지 않다 -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름이라."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행위의 열매가 세상 가운데 그들을 따르며

하늘에서 그들을 따름을 의미한다. 이 얼마나 복된 약속인가! 믿는 자의 행위의 수혜자들은 하늘에서 그들을 따른다. 자녀들이 하늘에 이르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친 부모들을 따른다. 청중들은 아래의 교회 안에서 위의 교회 안으로 모두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전파하였던 그들의 목자들을 따른다. 땅 위에서 전혀 만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던, 그러나 결코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용한 것도 하였다고 생각지 않았던 하늘에 들어간 겸손한 성도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니,
그들이 지금 그분과 함께 함이라!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소유한 영광들은
여기서 죽을 자들은 아무도 알 수 없도다.

속량 받은 혼이 자유함을 얻으니
이 궁핍하고 죽을 틀로부터,

그것이 사라져버렸음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 함께 있으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네!

믿음이 애쓰나, 여기서 잘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라,
그가 택하시고, 구속하시며, 부르셨던 자들을 위하여,
이제 하늘 가운데 나타난 자들이라.

이제 우리 이를 앞으로 기뻐할 것이라 -
그들이 완전히 복되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죄로부터 자유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함이라!

우리 친구들을 구원자께서 총만히 바라보시니
모든 그의 영광을 나누노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되리라;
그리고 그 곳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7. "하나님의 상속자들"

로마서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장의 모든 행은 그 의미로 충만한 본문이다. 이는 영광스러운 복음 진리로 넘쳐나는 고갈되지 않는 광산처럼 보인다. 모든 말이 “은혜!” “은혜!” “은혜!”를 메아리 치는 것 같다. 1 절에서 시작하여, 바울은 우리 앞에 황금 사닥다리를 놓는다. 각 단계가 더 높고 그리고 더 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의롭게 함으로부터 그는 거듭남으로 올라간다. 거듭남으로부터 거룩하게 함으로 올라간다. 거룩하게 함으로부터 그는 영화롭게 함으로 올라간다. 영화롭게 함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임을 선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패하지 않고, 영원하며, 더럽혀지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을” 기업의 약속이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필요 없이, 이 기업은 소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다른 어떤 기업은 불만족스럽고 실망스럽다. 이 세상의 부는 사람이 그토록 열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많은 염려를 가져옴은 확실하다. 그들은 결코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없고, 혼란스런 양심을 진정할 수 없거나, 죄의식의 혼에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부는 병과 사별과 이별과 사망을 막을 수 없다. 그것들은 심지어 일시적 기쁨이나 가정의 평안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들 간에는 어떤 실망도 결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영원히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모든 다른 것들은 이전에 사라지지 않았다면 사망 시에 떠나버릴 것이다. Howard Hughes 는 나사로보다 더 많은 것을 무덤으로 갖고 가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들과는 무관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업은 영원하다 (히 9:15).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다리는 기업은 그것을 갈망하는 모든 자가 도달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얻으려 애를 써도 큰 부를 얻거나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생명은 복음 가운데 죄인들 앞에 두어지고 하나님의 계약조항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아니다. 실상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 이 상속권은 자연적인 창조나 가족 혈통의 결과로 오지 않는다. 성령은, "피조물이면, 상속자들이라."고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상속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은혜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사이다 (요 1:12-13; 롬 9:7-13). 사람의 공로나 종교 의식들이 상속자격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 (갈 4:30; 롬 4:9-12). "종이며 상속자들이다." 혹은 "할례를 받았든지 침례를 받았다면, 상속자들이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격을 한 가지 조건이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 "자녀이면, 상속자들이라." 아마도 당신은 자신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거듭났는지, 위로부터 낫는지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질문들에 대한 매우 확실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사항에 대해 추측할 일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 대한 다섯 가지 특징이 여기 있다. 만약 이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전능한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만약 이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다른 사람들처럼 진노의 자녀들”이다.

1. 하나님께 거듭난 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인 자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 1:12). 당신이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로서 신뢰한다면, 만약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바란다면, 그분 안에 있는 당신의 믿음은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역사의 열매이고 증거이다 (히 11:1).
2.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 모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된다 (롬 8:14). 성령은 그리스도의 소유인 자들을 인도하신다. 그들의 마음과 삶과 그들이 느끼는 애착 안에 있는 태도는, 비록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언제나 동일한 방향 안에 있는 태도이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우리의 죄로부터 떠나 그분의 피로...우리의 의로부터 떠나 그분의 의로...자기 신뢰로부터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신뢰로...우리의 느낌으로부터 떠나 그분의 말씀으로...우리의 행위로부터 떠나 그분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섭리에 의해서, 말씀의 권고를 통하여,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인도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의 경로 안에서, 은혜의 보좌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3.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거듭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복된 자유를 소유한다 (롬 8:1-4, 15). 우리는 죄의식과 율법의 공포로 기인한 하나님에 대한 노예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구원 받았다. 우리는 아담이 “동산의 나무 뒤로 자신을” 숨기게 하였으며 가인이 “주의 임재로부터 떠나 버리게” 만든 그 죄로부터 구속 받았다. 비록 최고의 존경 가운데 그분을 붙잡은 느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느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존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 자신의 귀한 아들의 피를 통하여 화해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거룩한 존재의 충만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을 갖는다. 우리는 그분의 모든 것,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나타나고 존귀히 된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본다. 우리는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며 그분의 아버지께 자녀의 확신과 평강으로 그분께 말씀드린다. 우리는 이제 두려운 느낌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랑과 감사의 느낌으로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속박의 영을 자유의 영으로 바꿨다. 우리는 사랑의 영을 위해 두려움의 영을 포기하였다. 우리는 의무의 영을 버리고 감사의 영을 취했다. 우리는 율법의 영을 내려놓고 은혜의 영을 취했다.

4. 하나님께서 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영의 증언을 갖고 있다 (롬

8:16; 고전 1:22; 고후 5:5; 엡 1:13; 4:30; 요일 5:10).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 그 영에 의해 적용되는 피는 그리스도께서 충분함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그는 우리의 죄가 없어졌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면서, 평강이 회복되었고, 하늘의 문이 우리 앞에 열렸으며, 지옥의 구렁이가 영원히 닫혔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우리는 그 영의 증언으로 세상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다 - "은혜를 통한 선한 소망" (고후 2:16).

5.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참여한다. 기록되기를,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우리도 역시 함께 영화롭게 될 것이다." (롬 8:17).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자원하여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주인을 따른다. 그들은 대가나 결과에 관계 없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른다."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모든 자는 같은 이유로, 같은 정도에 같은
층만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많은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상속자들인 반면, 다른
사람들이 순종의 자녀들로서 크고 존귀하며 기쁜 몫을 갖게 될
것인데 반해서 어떤 자들은 말썽꾸러기 아들딸들로서 적은 몫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것도 진리로부터 더 멀어질 수
없다.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행위가 좋은 나쁜든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 “만약
자녀들이며, 상속자들이라!” 문제는 그 만약이란 말로 결정된다.
만약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면, 우리의 하늘의 기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의심이 존재 할 수 없다.

하늘에는 보상의 등급 같은 그런 것은 없다.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빈민굴이 없다. 하늘에는 왕관을 쓰지 않은 왕자는 없다. 하늘에
보상의 등급에 대한 교리를 발명한 자가 누가되었든지 간에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의 교리에 대하여 몰랐다. 전체 체계가 면죄부와

연옥에 대한 교회의 교리를 강타한다. 그것은 다만 행위 종교의 또 다른 교활한 체계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선지자들이고, 사도들이며, 전도자들이고, 교사들이며, 선교사들이고, 잘 교육받은 탁월한 성인들이 아니다. 모두가 영적 은사들과 역사들에 있어서 풍부하고 영향력이 있지 않다. 그들은 모두 강하고 쓸모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동등하게 같다. 모든 자는 동일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같은 사랑으로 같은 정도로 사랑 받는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어떤 등급도 없다. 모두가 영원 전부터 동일한 복으로 복을 받는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앗아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 (엡 1:3). 모든 자들이 동일한 배경과, 동일한 이유와, 동일한 등급으로 받아들여진다 (엡 1:6). 모든 사람이 장로 형제, 첫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기업이 오는 분께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다. 모든 자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하여 기업을 받았다 (엡 1:11; 히 6:20). 은혜의 체계

안에는 행위를 위한 여지가 없다 (롬 11:8). 우리의 영광은 더이상 우리의 태정과 구속과 칭의와 중생과 성화보다 우리의 행위로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하늘 영광이 궁극적인 구원의 끝이라면 (그리고 그렇다), 우리 행위는 그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성령은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고 기술한다. 그 사실의 적용에 대해 생각하라. 우리의 기업은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하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한 것이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계 21:7).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고후 3:21).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러면 우리는...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들이다 (히 1:14)...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들 (딤후 3:7)...언약의 상속자들 (히 6:17)...생명의 은혜의 상속자들 (벧전 3:7)...의의 상속자들 (히 11:7)...왕국의 상속자들 (약 2:5).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 우리의 기업은 또한 무한히 큰 기업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들, 그분 존재의 모든 상속자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상속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사람,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 분의 모든 것의 상속자들이다.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하신 그분의 완전한 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 주신 모든 영광을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셨다 (요 17:5, 22).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사이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자신과 공동 상속자들이라는 그런 영광스럽고 비밀스러운 연합이 내재되어 있다. “만일 자녀들이면, 그러면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다.” 이것은 실로 은혜롭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집 안으로 받으셨으며, 우리를 그분의 장자로 입양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모든 상속자들로 만드셨고, 그분의 귀한 아들과 공동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다.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이고 교제이며,

성화는 그리스도의 거룩 가운데 그분과의 연합이고 교제이며, 영화는 그리스도의 아들 명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이고 교제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 가치이다. 기업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그분 안에서 매우 만족할 매우 소중한 그분의 아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것과 같은 기업이다.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기 위한 우리의 가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이 기업을 받을 가치가 있다 (골 1:12).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로 가치 있게 되었으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거룩한 생명으로 완전한 의 안으로 데려가셨으며 그분의 죄속량의 죽음으로 우리의 빛을 완전히 갹으신 분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절대적 확실성의 문제이다. 우리가 그분과 연합함이 그것을 보증한다. 영광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 증서는 우리 것이다. 그 둘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요청하였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이름으로 하려고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분은 그것의 복된 소유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받았을 때 무엇을 기대할지 정말 모르겠다 (요일 3:2). 그러나 어떤 것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다. 우리가 사망에서 일으켜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때 영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영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될 것이다 (계 21:3-4). “우리가 알게 되었을 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알 것이다.” 우리는 죄를 향하여 영원히 “안녕히”라고 말할 것이며 완벽한 거룩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안식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히 4:9). 하지만, 우리는 주를 완벽하게 섬기게 될 것이다 (계 7:15). 우리는 서로가 완벽한 교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를 직접 대면할 때 전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시 17:15).

8. 천국에서 상급의 단계가 있을 것인가?

계시록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왔던 것에 대한 질문이다. 그 교리가 다른 영역에서 철저히 성경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보상에 대하여 죽어서 오류가 있어왔다. 이 공과에서 이 질문을 둘러싼 논란을 진정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안다. 그러나, 건전한 교리가 된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믿은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내 책임이며, 따라서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은 “모든 교리의 바람으로 사람들의 책략으로 인하여 그리고 교활한 술수를 씀으로써 이리 저리 뒤흔들리고 모든 교리의 바람을 들고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이 공과에서 나의 목적은 세가지다. 나는 우리 위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이 글을 읽는 당신을 바로 세우며, 죄인들에게 은혜 만으로의 구원의 길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구원은 죄인을 타락의 파멸로부터 하늘의 영광 안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의 역사이다. 그것은 모든 우리 교리를 건축하는 기초이다. 구원은 은혜로만, 믿음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한다. 구원의 어떤 부분도 조금이라도 사람의 의지나 가치나 행위에 기인하지 않는다 (딤후 1:9; 엡 2:8-9; 롬 11:6). 만약 구원에서 하늘에 속한 보상을 분리해 낼 수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보상의 단계에 대하여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이 오직 구원의 성취라면, 그러면 하늘에서 보상의 등급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다.

보상 등급의 교리

하늘에서 보상 등급을 가르치는 자들의 교리는 무엇인가? 이 교리를 가르치는 어떤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어떤 견해들을 갖고 있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교리이다. 내가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는 것으로 고소당하지 않는 한, 이 교리의 지도적 제안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Merrill F. Unger 의 말이다.

“보상은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후 행해지는 신실한 섬김을 근거로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길 잃은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보상은 구원 받은 자의 신실한 섬김을 위하여 주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 분명하다. 종종 신학적인 생각 가운데 구원과 보상이 혼돈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항목은 세심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구원은 대가 없는 은사인 한편 (요 4:10; 롬 6:23; 엡 2:8-9), 보상은 행위에 의해 얻어 진다 (마 10:42; 눅 19:17; 고후 9:24-25; 딤후 4:7-8). 보상은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에서 분배될 것이다 (고후 5:10; 롬 14:10). 보상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 한 혼이 신성한 은혜에 기초하여 구원 받으면, 믿는 자의 편에 공로를

세우기 위한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 편에서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의 구원 받은 자들을 보상 할 책임을 깨닫고 계시다. 아무것도 구원에 가치를 줄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취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에서 보상으로 그분의 위대한 신실함 가운데 깨달으신다.”

Unger 씨는 하늘 보상의 등급을 가르치는 자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한 공정한 제시를 한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1.) 구원은 회심의 첫 경험에 제한 된다. 그것은 신약의 교리가 아니다 (고후 2:10; 딤후 1:9; 롬 13:11; 벰전 2:4; 마 10:22). 구원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떼어낼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묶음이다. 택정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함을 받는다.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 은혜를 받은 자들은 또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롬 8:28-30). 모든 영적 축복들은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 속한다 (엡 1:3-4). ... (2.)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종교인들 사이에서 교리처럼

알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주와 왕이신 그리스도께 자원하여 복종하는 종들이다 (눅 14:25-33). ... (3.)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을 강요한다! 그것은 진정 어처구니 없다.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 덕분에 어떤 것을 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 사람에게 불과한 자가 전능하신 분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 (4.) 두 가지 심판의 날들, 하나는 믿는 자들을 위한 날과 다른 하나는 불신자들을 위한 날이 있다. 그 사람들은 분명 성경을 그들의 교리에 맞추려 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는 비밀스럽고 하나는 열려있고 공개적인 그리스도의 두 가지 두 번째 오심이 있고, 하나는 비밀스럽고 하나는 열려있고 공개적인 두 가지 두 번째 부활이 있고, 하나는 믿는 자들을 위하고 (그리스도의 심판 보좌) 하나는 불신자들을 위한 (크고 흰 보좌) 두 가지 심판들이 있다고 가르친다. ... (5.)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들에 대하여 여전히 고통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보상의 등급에 대한 교리의 가장 끔찍한 방면 중 하나이다. 그것은 어떤 자들은 회심한 후에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영원히 고통 받아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하늘에 있는 지옥의 영원한 상태를 하나님의 성도들 중 일부가 통과하도록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에게 죄의 혐의를 씌우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한다 (롬 4:8; 8:32-34).

이 교리의 영향

이 교리의 불가피한 영향은 무엇인가? 만약 하늘 보상의 등급의 교리가 받아들여 진다면, 다음의 것들이 인정될 것이다...

1. 하늘의 영광은 은혜의 보상이 아니라, 빛의 지불이다.
2. 하늘은 순수한 기쁨의 처소가 아니라, 기쁨과 한탄이 섞인 곳이다.
3. 하나님은 바로 걷는 자들에게서 어떤 선한 것들을 보류하시며, 어떤 악한 자는 공의에 스러지게 될 것이다 (시 84:11; 잠 12:21).

4.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부분,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것은 분명 우리에게 의해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 교리에 반대해야 한다

왜 이 교리에 대하여 그토록 독단적으로 반대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한다. 단 한 구절도 이 교리를 지지하는 하늘에서 어떤 성도들이 더 받고 어떤 성도들은 덜 받을 것이라는 암시조차도 가리키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 언급된 왕관들 중 어느 하나도 특정한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하지 않는다 (계 4:10 을 보라). 그것들은 모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늘에서의 보상에 등급이 있을 것이라는 교리는 성경의 가장 분명한 천명에 완전히 모순된다 (마 20:1-16{특별히 12 절}; 요 17:5;

롬 8:17, 29; 엡 1:3; 5:25-27; 유 24; 요일 3:2). 거룩의 등급이나, 온전케 함의 등급이나, 흠 없음의 등급이나, 영화롭게 함의 등급이 있을 수 있는가? 물론 아니다!

하늘 보상의 등급이 있을 것이라는 교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섬김을 율법적이고 보수가 목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교만을 진작시키고 형벌로 위협한다. 그것은 공로에 근거하며, 보상의 영감을 주고, 율법적 섬김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용된 자가 아니라 자의에 의한 종들이다. 그리스도의 군대의 군인들은 용병들이 아니라, 자원병들이다.

보상의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가로채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인간 육체를 위한 여지를 만들어 준다.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 하시도록 강요할만한 어떤 것을 했다면, 우리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자랑할 권리가 있다. 만약 우리가 영광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인정받을만한 어떤 것을 한다면, 우리는 자랑할 모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누구나 더 잘 안다. 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자라면 누구든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자랑하는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친다 (고전 4:7).

영광 가운데 보상의 등급의 교리는 그것에 대한 행위의 추악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은혜의 왕국 가운데 행위를 위한 여지는 없다. 자른 돌 제단 위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출 20:25). 곧고 좁은 길에 행위의 사고방식을 위한 여지는 없다.

파멸된 교리

보상의 등급의 교리를 파괴하고 영광 가운데 영원히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믿는 자를 확신시키는 성경의 한 말씀이 있다. 계시록 21:4 을 읽어보라. -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말씀은 하늘로 가는 길에 많은 눈물이 있음을 의미하며, 사실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모든 저주로부터, 그리고 정죄로부터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고통이나 비통으로부터가 아니다.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지내며 이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육체적 고통과 질병, 가정 불화, 경제적 손실, 가족을 여읜 등.)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비통의 세상이다. 실로 세상이 모르나 우리 눈에 눈물을 가져다 주는 많은 일들이 있다 (내적 죄, 불신, 분노, 경솔한 말, 구겨진 자존심, 마음의 냉정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의 부족, 의기소침 그리고 불신).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흘리는 소중한 눈물이 있는데 그것은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말라버릴 것이다. 동정의 눈물은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염려의 눈물은 우리 주께서 보시는 모든 것들을 볼 때 그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갈망하는 눈물은 우리가 “주와 영원히 함께” 있을 때 모두 말라버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조차도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많이 닦아 주신다. 믿는 자의 삶은 우울하고 비통함으로 가득한 존재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비통함이 있다. 하지만, 비통한 가운데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 (사 43:1-6).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에 복종할 만큼 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도록 가르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에 대하여 일깨우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임재의 느낌으로 축복하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넘치게 하신다 (엡 3:19).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고통의 원인을 일깨우신다 (히 12:5-12). 그분은 우리 마음이 더 나은 것들 위에 고정되도록 하신다 (갈 3:1-3; 고후 4:15-18).

그러면, 하늘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기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더이상 흐느끼지 않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아무런 까닭이 없게 될

때가 온다! 하늘은 확실하고, 영원하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기쁨의 장소이다.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다. 하늘은 비통함이 없는 기쁨과 슬퍼함이 없는 웃음과 고통이 없는 즐거움의 장소이다! 하늘에는 어떤 종류의 후회도, 뉘우침의 눈물도, 다시 생각함도, 잃어버린 까닭도, 비통함도 없다!

이 마지막 단락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라. 여기에 나타난 생각들은 정말 경악케한다. 비록 직접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이 주제에 대하여 C.H. Spurgeon 에 의해 표현된 생각들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지 않으셨다면, 하늘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과거 죄들, 영원히 길 잃은 회심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 허비된 기회들, 이 세상에서 우리 형제들에 대한 불친절과 사랑의 부족, 그리고 우리 구속에 대한 끔찍한 대가는 우리 마음을 부수고 우리 눈에서 영원히 흘릴 눈물의 강의 모든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되기를 -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우리 위대한 하나님은 하늘 영광 가운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없애시고, 우리로부터 모든 죄를 없애시며, 죄의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서 없애 버리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비탄의 원인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완전의 구원의 완벽함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모든 갈망이 완전히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사랑하며, 끊임없이 그분을 섬기며, 죄가 없이 그분께 경배하고, 완전히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충만이 그분을 누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구속 받은 자의 축복된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인가? 당신이 하늘에 있을 만 하면 오직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자격이 있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영원한 영광의 자격이 있다면 당신은 등급이 없이 완전하게 모두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이 당신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도우신다.

9. 천국에선 눈물이 없다

계시록 7: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앞서의 공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의 하늘 기업의 많은 방면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에게 돌아갈 그 기업의 영광과 동일성 모두 반박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것이 하늘에서 눈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 세상에 있는 각각의 믿는 자는 자신을 눈물짓게 하는 많은 일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게 될 저 세상 가운데에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보좌 한 가운데 계실 어린양께서 그들을 먹이실 것이고, 그들을 그들을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비통과 눈물의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그들의 하늘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아, 얼마나 내 집에 가기를 갈망하던가,
하늘에 있는 나의 영광스런 집!
즐거운 시간이 왔기를 바라네,
환영의 명령을 받았네!

아, 얼마나 벗어버리기를 갈망하던가
이 낡아빠진 육신의 수의를;
그리고, 내 하늘 인도자에 이끌려,
영원한 날을 찾아가리!

아,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던가,
그분의 모든 영광이 발하는 곳!
내 모든 죄로부터 나와 자유하리,
꿈꾸었던 경배를 드리네!

아, 얼마나 그분의 미소 보기를 갈망하던가,
그분의 발 앞에 앉아서!
주여, 내 마음의 갈망을 속히 주소서,
속히, 속히 당신의 일을 마치소서.”

Charlotte Elliot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천명하는 것을 허락하라. 삶에 지치지
않았고, 내 구속자를 섬김에도 지치지 않았다. 주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충만하고 더 행복한 삶을 내 시간동안 세 배나 더
길게 주께서 내게 주셨다. 내 마음과 생각과 지력은 더욱 더 충만히
채워졌고 그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섬김에 열심이다. 여전히, 내
마음은 아직도 더 나은 것에 고착되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살기를 갈망한다. 죄 없이 나의 주를 완벽하게
섬기기를 갈망한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따라서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할 갈망,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다.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있을까? 하늘은 얼마나 클까?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무엇을 소유하게 될까? 이런 것들이 육체적 종교주의자들을 흥미롭게 하는 하늘에 대한 질문들이다. 나는 그것들이 당신의 최우선 관심사가 아니길 소망한다. 여전히 우리 생각은 하늘에 대한 어떤 관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무언가 알 필요가 있다. 비록 하늘에 대하여 계시된 것 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직 땅에 속한 진흙 성전 속에 있는 동안 알아야 하는 것만큼만 계시하셨다.

하늘은 실제 장소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실제 사람의 몸으로 그곳에 계신다 (히 2:9; 10:12-14).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가 그곳에 있다 (히 12:22-24). 하나님의 천사들도 역시 거기에 있다. 하늘은 하나님에 의해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사들인 장소이다 (마 25:34; 히 6:20). 그것은

완벽한 안식의 처소이다. 그것은 완벽한 평강의 처소이다. 그것은 완벽한 사랑의 처소이다. 그것은 완벽한 만족의 처소이다. 하지만, 하늘의 총만과 아름다움과 영광은 인간의 이해와 표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들이다 (고후 12:4). 하늘은 육체적인 의미의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상의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고전 2:9). 하늘에 대한 여러분의 가장 높고, 고귀하며, 광대하고, 가장 영적인 생각들은 그 실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난 바가 아니라." (요일 3:2). 하늘은 인간의 사고력과 인간의 지혜로 발견되고 얻어지고 이해되는 장소도 아니다. 사실은, 하늘의 총만이 무엇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한 가지를 확신하는데, 하늘에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생각하는 우리 하늘 기업의 가장 기쁘고 위로하는 방면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눈물이 없다

물을 필요도 없이, 하늘로 가는 길에 많은 슬픔이 있다. 체험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 구원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고통과 고난으로부터는 아니다.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통받을 많은 일들이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적인 고통과 질병, 경제적 손실, 사별, 가정 불화, 그리고 실망들을 체험한다. 욥과 다윗에게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지 물어보라. 믿음과 순종에 있어 가장 현저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비통함에서 예외가 되지 않았다. 아무도 여기서 당신의 고난과 비통함이 하나님의 소외의 표시라고 생각하게 당신을 속이지 않게 하라.

사실상, 세상이 그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당신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어떤 고난도 사람들의 내적 죄를 깨달음만큼 그렇게 많이 혹은 그렇게 끈질기게 혼을 거듭나게 하지 않는다. 비록 성도 각자가 그의 구원자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스스로를 맡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념하는 것에 끊임 없는 부족함이 우리 혼 안에 혼란의 지속적 이유이다. 불신, 상처, 다친 자존심, 분노, 경솔한 말, 냉정한 마음, 그리고 조바심이 믿는 마음 각각이 매일 고통을 겪는 일들의 몇 가지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로마서 7:14-24 에 있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우리는 매일 전쟁을 겪는다.

심지어 우리가 여기서 흘리는 눈물 중에는 보배로운 것이 있으며, 그것은 요르단 강 건너편에서 말라 버릴 것이다. 회개의 눈물은 일단 우리가 회개할 죄의 체험이 없으면, 우리가 결코 겪지 않게 될 심히 달콤한 것이다. 동정의 눈물은 질병이나 슬픔이나 사망이 더 이상 없게 될 때에는 더이상 흘리지 않을 것이다. 염려의 눈물은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모두 말라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그 갈망처럼 고통스럽게 기쁜 우리의 갈망들은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때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제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신다

지금이라도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충분히 마르게 하실 수 있다. 믿는 자의 삶은 여기에서조차도 비통함의 우울한 삶이 아니다. 주님은 은혜롭게 우리 고난의 한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충분히 위로하신다 (사 43:1-6).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의 믿음으로 우리를 단념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일깨우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축복하시며, 달콤한 교제의 때에 세상 가운데 하늘을 맛보게 하신다. 때로는 그분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넘쳐나게 한다. 우리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어떤 일이 그 이유가 끝났을 때, 그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없애신다. 우리 아버지는 결코 우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고난 당하도록 허락지 않으신다. 큰 시험과 고난과 비통함의 한 가운데에서조차, 그분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에 고정시키심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신다 (고후 4:15-18).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집으로 데려 가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으실 것이다. 하늘은 확실하고 영원하며 언제나 늘어나는 기쁨의 처소이다. 그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지 않으신다면, 하늘에는 많은 눈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없애버리실 것이 사실이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이 그분의 은혜롭고 지혜로운 손길로 우리의 영원한 선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뒤엎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과거 죄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아는 것이 무엇이 될지 상상해 보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모두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충만이 화해가 될 그 사실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뒤에 남겨진 회심하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두고 우리가 영원히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무지함도 사용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분명 이 세상에서 놓쳐버린 모든 버려진 기회들을 두고 영원히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 하늘에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보게되지 않았다면, 우리 구속의 그 위대하고 끔찍한 대가를 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지 않았겠는가. 완벽한 사랑의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우리 형제들에 대한 불친절과 사랑이 부족함을 두고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 —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버리실 것이다. 그분은 밖으로 나온 슬픔의 모든 원인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그리고 우리에게서 모든 죄를 없애 버리실 것이다. 변화의 모든 두려움이 차단될 것이다. 우리 마음의 모든 갈망이 만족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것이며,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사랑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끊임 없이 섬길 것이고, 죄가 없이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알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안식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히 누릴 것이다!

당신은 구속 받은 자의 기쁜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인가? 모든 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많은 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모든 자는 그곳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헛되게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 그가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견딘 모든 자를 하늘에서 그분의 옆에서 그가 바라보실 것이다. 그분의 의로 옷 입은 모든 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10. 천국 기업의 규모

로마서 8:18-23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18-23 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의 큰 특권과 기대에 대하여 말한 것처럼, 그는 은혜의 큰 물결이 쉽사리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기록하고 있는 그것들의 위대함은 그를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만약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라!”고 말한다. 이 어떤 기업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 대속자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공로로 기업을 소유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기 동안 그분을 위하여 고난 받아야 하지만, 우리 땅에서의 비통한 것이 끝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사도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한다. 우리 안에 계시될 이 영광은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것이 될 영광이 아니다. 이것은 부활 때에 우리 구원의 완성 안에서 우리 것이 될 영광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자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말을 찾고 있는 듯 보인다. 이 몇 개의 구절 안에서만도 그는 네 가지 다른 것들을 외치고 있음을 주지하라.

-
- (1.) "우리 안에 계시될 영광" (18 절),
 - (2.) "하나님의 아들들의 체현" (19 절),
 - (3.)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21 절), 그리고
 - (4.) "우리 몸의 구속" (23 절).

이것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자 우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딤후 2:13)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는 바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벧전 1:13)고 우리에게 훈계한 이유이다. 이 하늘 기업은 묘사할 수 없는 우주적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이다.

우리 안에서 계시될 영광

우리 안에서 계시될 영광은 이 현세의 고난들이 그것에 비교될 가치가 없는 그러한 규모이다. 바울은 18 절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고 쓴다. 사도 바울은 영적 수학의 일종을 여기에서 사용한다. 그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을 두 개의 별도의 항에 제시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고난의 양은 대단히 클 것이라고 그는 시인한다. 다른 항에서, 그는 우리 안에서 계시될 영광의 양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한다.

현재의 고난은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셨던 것에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에 비교해서,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에 비교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비교하여 우리의 이 곳에서의 슬픔은 단지 “가벼운 고통”임을 나는 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유일한 자식을 이제 막 받은 자에게 그의 고통이 가볍다고 말하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고통은 그에게는 큰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서 바라보면, 우리의 비통함은 참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고 고통스럽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은 무겁디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의 일시적이고 세상에서의 짐과 고통의 가장 무거운 것은 우리 안에서 계시될 영광에 비교할 가치가 없다.

우리의 고난들은 이 세상에 국한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항상 애써야 한다. 어떤 고통의 단기간은, 우리가 그 고통이 안도와 누림의 오랜 시간에 의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다. 라헬을 위하여 라반에게 야곱이 십사 년간 섬김은 그녀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단지 며칠처럼 보였다 (창 29:20). 출산 때 어머니의 진통은 그녀의 아기가 품 안에 있게 되자마자 잊혀진다. 우리 주 예수는 그분의 육신과 마음과 혼의 고통 가운데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할 속량 받은 자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쁜 기대로 견디셨다 (히 12:2). 그러므로, 또한 우리

마음은 우리가 현세의 것을 넘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때 고난 가운데에서 견디고 있다 (고후 4:17-5:1).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늘의 기업의 영광은 너무도 관대히 크게 될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비통함의 고통스러운 모든 기업을 우리로부터 없어질 것이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비통은 앞으로 올 세상의 영광에 단지 더해질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원 가운데 우리의 영광과 기쁨과 영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 비통함으로 인하여 더 크게 될 것임을 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고후 4:17; 벰전 1:6-7).

“그런 것은 하늘 기업의 기쁨이 될 것이므로 그에 앞섰던 비통함의 몇 년간을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그것들을 지워 버리기에 적어도 우리는 후회로 그것을 결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높이는 장식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현세에서의 고난들은 우리 안에서 계시될 그 영광에 비교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들에 영향을 주는 부활 때에 우리 안에서 계시될 것인 영광은 매우 위대하고 광대하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19-22 절).

피조물, 말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우리 조상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노예 상태로 되었다. 아담의 죄는 인류를 넘어섰다. 그것은 전체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 전체 창조는 자원해서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의 결과 속에서 타락의 노예 상태로 들어갔다. 땅 자체는 저주를 받았다. 아담의 집 고양이는 으르렁 거리는 사자가 되었고 그 개는 떠돌이 늑대가 되었다. 이런 창조의 타락의 노예 상태로의 종속은 하나님의 손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도록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동일한 것을 드러내셨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도 역시 타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해질 것임을 의미한다. 부활 가운데 우리 몸의 구속은 새 창조의 생일이 될 것이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한 땅의 창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방법으로 악에 종속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실 때, 그분의 창조를 완전히 그분 자신께로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을 섬기고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복원이 있을 때 약속된 날이 있다 (행 3:21; 엡 1:9-10).

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본성과 기능에 따라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보였다. 매우 광대할 정도로 그것들은 여전히 행하고 있다 (시 19:1-4).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사물들의 본성적인 질서였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모든 것이 그 찬양의 찬사를 영원히 축복받으실 모든 것 위의 하나님께 드렸다. 세상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위로를 위하여 창조하셨던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해 악용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데 쓰시려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는 바알에게 희생했다 (호 2:8).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상상 속의 신에게 희생되었다. 창조의 모든 유익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였다. 창조 그 자체가 경배 받기 위한 어떤 신으로 변해버렸다! 땅은 "어머니인 땅!"이라 한다. 자연은 "어머니인

자연!“이라 한다. 시간조차도 “아버지인 시간!”으로 경배된다. 자연은 타락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처소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피조물들이 논리나 지력이 없지만, 그러나 전에 그런 것처럼 모든 창조가 타락한 사람과 함께 전쟁하고 있듯이 사람에게 반대하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본능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들의 짐승과 공중의 조류와 땅의 기는 것들과 땅의 돌에게까지 한 언약에 대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호 2:18).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 노예 상태는 단지 일시적임을 확신시킨다.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한 때 타락의 노예 상태에 창조를 두는 것이 합당함을 아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타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있는” 복종이 있음이 특별히 언급된다. 무덤으로부터 우리 몸의 구속은 우리의 마지막 대적의 파멸과 죄의 모든 효능의 마침이 우리를 위하여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위에 노예상태와 죄의 모든 타락하게 하는

효능의 마침도 있을 것이다. 창조 전체가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우리의 하늘 기업에 대하여 주어진 세 가지 설명을 주목하라. 우리가 이 영광의 설명을 바라 볼 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됨에 대하여 말하는 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가장 큰 가능성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으로부터 수행해오셨던 사건들의 위대한 연속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 영광의 기업은 택정하심과 예정하심의 목표이며 섭리의 대상이다 (롬 8:28-30; 엡 1:3-6).

1. 그것은 “우리 가운데 계시될 영광”이라 부른다. 이것은 우리의 완성된 구원 가운데 계시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가리킨다 (엡 1:6, 12, 14; 2:7).
2.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 부른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악한 자들에

의해 조롱 당할 때를 제외하고 거의 알게 되지도 않고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나타나는 날이 될 날이 오고 있다 (요일 3:1-2).

3.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해방”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우리의 기쁜 희년일 것이다! 그 날이 올 때, 우리는 죄의 벌과 통치에서 해방될 것이다. 사망 시에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의 빈 무덤을 되돌아 보며 승리와 정복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 “아 사망이여, 너의 바늘이 어디 있느냐? 아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바늘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감사가 하나님께 있으니,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짐이라.”

믿는 자들이 이 영광을 위하여 그들 안에서 신음한다

하늘에 속한 우리 기업의 규모와 위대함과 위엄과 영광이
그러하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높고 가장 큰 기쁨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하여 기다리며 우리 안에서 신음한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23 절). 첫째, 사도는 그
영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26 절에서 언급된 신음들이다. 첫 열매는 기쁘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한 추수를 위하여 신음한다 (롬
7:24). 둘째, 바울은 우리의 양자됨을 기다리고 있음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영원한 택정하심 가운데 신성한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되었다 (엡 1:3-6). 우리가 양자의 그
영을 영접했을 때 거듭남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체험적으로
양자되었다 (갈 4:6-7). 우리는 부활 안에서 우리의 양자됨의 완전한
누림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셋째, 사도는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기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몸의 구속"으로
묘사한다. 그리스도께서 세배의 의미 가운데 우리 안에 구속으로

되셨다 (고전 1:30): (1.)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죄의 벌에서 우리의 대속물로서 죽으셨을 때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으로 구속 받았다 (갈 3:13). (2.) 우리는 거듭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능력으로 죄의 지배와 통치로부터 구속 받았다 (롬 6:18). (3.) 우리는 부활 가운데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구속 받았다. 우리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이 놓여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그 위에 두도록 하자 (골 3:1-3). 이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설명할 수 없이 엄청난 기업을 우리 왕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스러운 성취가 될 것이다 (고전 15:24-28). 믿는 마음을 이 세상 안에서 기대하는 희망으로 채울 것이 이 복된 소망이다.

11.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천국: 다시 얻은 낙원

계시록 22:1-5

“또 저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맞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를 에덴 동산 가운데 두셨다. 에덴은 결백, 풍성, 생명, 기쁨의 장소였다. 그것은 지상 낙원이었다. 그러나 낙원은 주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가 될 한

여인을 그에게 주시기 전까지 아담에게 완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께서 아담을 흙 안에 잠재우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아담의 상처 입은 옆구리에서 하와가 만들어졌다. 그녀는 아담에게서 왔다. 그녀는 아담의 일부였다. 아담이 없이 하와는 결코 살 수 없었다. 하지만, 하와 없이 아담은 결코 완전할 수 없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집으로 하나님의 낙원을 가졌다. 그곳에서 그들은 뱀이 하와를 속여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기 전까지 완전한 조화와 거룩과 행복 안에서 살았다. 아담이 하와가 행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 가운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 낙원은 잃어버렸다. 타락한 사람은 주의 임재로부터 쫓겨났다.

시간의 충만 안에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사랑스런 신부, 그분의 택하신 교회를 찾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왔다. 그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우리 대신 회복하기 위하여 왔다. 그의 죽음에의 순종으로 그는 아담 안에서 잃었던 모든 것, 의, 평강, 생명, 하나님과 교통, 그리고 낙원을 우리를 위하여 다시 얻었다. 그는 이미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백성의 이름 안에 그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낙원에 이미 들어갔다 (히 6:20). 하지만, 하와가 없는 아담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신부가 없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지 않다. 머리는 반드시 몸이 있어야 한다. 신랑은 반드시 그 신부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의 교회가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자의 총만이니라.” (엡 1:23).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하늘에서, 하늘 영광의 온전함 안에서 연합될 때, 낙원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계시록 22:1-5 에서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에서 가져온 상징을 사용하여 묘사한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원한 하늘의 상태는 다시 얻은 낙원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눅 23:43). 사도 바울은 “낙원 안으로 들러 올려졌다.” (고후 12:4).

그 복된 장소와 조건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묘사된다 (계 2:7).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들은 낙원으로 들어가며, 지옥도 아니고, 그 사이도 아닌 낙원에 들어간다. 그것은 무엇 같을까? 이 다섯 구절에서 요한은 낙원에 대한 여섯 가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1. 낙원의

강

지상의 낙원은 거대한 강이 적셔주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세상을 위한 물의 강일 뿐이었다. 하늘 낙원은 생명수의 강이 적신다 (1 절).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시 46:4). 강처럼 ,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택하신 자를 향하여 풍성하고 대가 없이 흘러가고 있다 (엡 3:18-19). 이 강의 물줄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만든다. 이 강의 물줄기들은, 에덴에 있는 강처럼, 세상을 가로질러 네 방향으로 흐른다. 그 강의 물줄기들은, 영원한 택정, 피의 속량, 효험 있는 부르심, 평강, 용서, 의롭게 함,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중보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강에서

죄인들에게 흐르는 이 은혜의 축복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다. 이 강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리는데 (슌 14:8-9; 요 7:38-39),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의 원천이고 원인이며, 생명으로 성도들을 살리고, 생명 안에서 그들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수정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전능하게 흐르는 강이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위선 없이 순수하고, 꾸밈 없고, 참되다. 그것은 동기나 조건이 없이 대가가 없다. 그것은 순수함을 증진한다. 그것을 계시하는 복음은 순수성과 거룩의 복음이다. 그 열매가 의인 것이 은혜이다. 이 사랑의 모든 발견은 우리가 순종과 사랑과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희생하도록 만들고 강요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함이 없으며 음란함을 결코 증진시킬 수 없다.

이 사랑의 위대한 강의 원천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나 사랑에 기인하거나 그것에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보다 앞서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원인이다 (요일 4:19).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대속물로서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에 조차도 기인하지 않고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구속하도록 보내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요 3:16; 애 5:8; 요일 3:16; 4:9-10). 그분의 택하신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다. 영원 전부터 그분은, "내가 그들을 즐거이 (역주: 대가 없이) 사랑할 것이다." (호 14:4).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그분처럼 영원하고 변치 않으며 멸하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의 원천과 원인은 그분 자신의 주권적 뜨과 기쁨이다 (롬 9:11-18). 다른 어떤 것에 기인할 수 없다.

2. 낙원의 나무 (2 절)
-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 나무가 있었다. 아담은 죄로 인하여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권리를 잃었다. 하나님의 낙원에는 다른

생명 나무가 있다. 그 생명 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그분은 그분의 완성된 구속의 역사 덕분과 그분의 성령의 능력으로 땅의 열방들에 흠어진 선택 받은 죄인들을 치유하는 분으로 하늘 가운데 계신 그 한 분이다. 그리스도, 생명의 나무가 하늘을 채우고 있다. 그는 길 한복판과 강 양 쪽에서 보인다. 하나님의 성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그것이 하늘의 축복받음이다.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다! 그분의 영화롭게 하심 후에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의 편재에 대한 루터의 교리는 옳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의 하늘에 속한 몸은 그분이 즉시 알려지고 도처에서 만날 수 있고 모든 때에 누구에게나 접근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죽을 운명이 그런 몸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구원자의 불멸한 몸과 부활 후 우리가 갖게 될 불멸의 몸은 이 땅에 속한 존재에게 모든 제한과 방해가 없이 필연적이다. 그리스도, 생명의 나무는 열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열두 종족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그분의 택정한 자의 모든 몸을 위하여 충분한 열매를 갖고

계시다.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소유한다 (요 1:16; 엡 1:6; 골 2:9). 이 생명 나무의 열매는 언제나 풍성하다. 그로부터 우리는 풍성하고 완전한 의, (의롭게 함과 거룩하게 함을 위하여 모두), 풍요한 구속, 풍부한 구속,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분의 은혜의 능력에 의하여 죄의 통치로부터,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에 의해 죄의 바로 그 존재와 결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시간과 영원 가운데 그 모든 복 받음과 함께 받는다. 이 나무의 잎은 열방들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이 나무의 잎은 복음의 복된 교리들: 대속물의 구속과 전가된 의이다. 오늘날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사람들의 혼을 치유하기 위하여 세상의 열방 속으로 그분의 은혜를 보내신다 (롬 1:15-16; 10:17; 고전 1:21). 그리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 나무의 잎,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은 에덴 안에 있는 생명 나무가 아담을 생명 안에 보존 하였을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를 생명 안에 보존할 것이다 (창 3:22-24). 심지어 복되고 영원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지켜지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에 끊임 없이 기여하고 보증할 것이다.

3. 낙원의 자유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 받았으므로 (갈 3:13), 율법의 저주는 구속 받은 자 위에 임할 수 없다. 죄가 없는 곳에 저주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 죄들을 없애 버리셨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손해를 겪는다든지 조금이라도 덜 영화롭게 취급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상상해 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또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죄를 전가하지 않으실 것이다 (롬 4:8). 우리를 기다리는 그 복된 상태 안에는 죄의 가능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주의 가능성이 절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타락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 10:28). 결과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저주에 대한 공포가 결코 조금도 없을 것이다!

4. 낙원의 보좌

“그러나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우리에게서 모든 저주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은 이 보좌의 임재와 불변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양이 한 분이며 하나님께서 어린양 안에서만 보이고, 알려지며, 계시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라고 부른다 (요 1:14, 18). 이 보좌는 모든 것의 원천이고, 모든 것의 통치이며, 모든 것의 종말이다 (롬 11:36). 이 보좌, 대가 없는 은혜와 주권적 통치의 보좌는 (단 4:35-37) 모든 믿는 자들의 기쁨이고 모든 반역자들의 두려움이다.

5. 낙원의 기쁨 (4-5 절)

“그의 종들이 그를 수종들 것이다.” 영원 안에서 우리는 우리 구원자 하나님을 완전하고 영구히 수종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그분 자신을 주신 분을 얼굴을 마주하며 볼 때, 우리는 그분과 완전한 교제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임과 그분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것이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은 자신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총만이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그분이 보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대할 때, 우리는 강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소유하고 그분께 소유되며, 영접하고 그분께 영접될 것임을 단순히 의미한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백성임을 고백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밤이 없을 것이다.” 하늘에는 어떤 종류의 어둠도 없을

것이다. 죄와 슬픔과 무지와 편협함의 어둠이 없을 것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이차적인 빛이 필요 없고, 지금 우리 경배에 상당히 기여하는 상징적인 계명들도 필요 없고, 믿는 자의 침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나 주의 만찬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도 없을 것이다.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며 교정하는 목사들이나 교사들의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이유는 이것이다. -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심이라.”

6. 낙원의 기한
- “그리고 그들은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 그분의 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그 전체를 아버지께 거룩하고 흠 없고 나무랄 데 없고 영광스럽게 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영광의 자유” 안에서 (롬 8:21)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고전 15:24-28). 당신이 건축자와 만든 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신 그 성의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위로하며 기쁘게 하도록 하라. (1.) 우리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주 예수그리스도께서 이제 낙원 안에 계시다. (2.) 그분의 상처 난 옆구리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위한 신부를 만들고 계시다. (3.) 낙원은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를 가지시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완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 가운데 그리스도께 드러지고,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 받고,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부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중 아무도 하늘에 속한 낙원에서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12. 믿는 자의 사망을 통한 영광에로의 쉬운 경로

출애굽기 15:16-18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 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그 안에 믿음도 없이, 그리고 소망도
없이 죽는 것을 보아왔다. 나는 그들이 생의 마지막 숨을 쉬면서
그들의 헛되고 소망 없는 얼굴에서 지옥의 공포를 보았다. 내가
다시 그 동정 어린 표정을 결코 보지 않을 것을 기도한다. 그러나,
나는 믿음 안에서 그들의 혼 위에 하나님의 미소가 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발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하나님의 어떤 성도들을 또한 보았다. 나는 이 세상 위에서 보는 더 기쁘거나 더 영광스러운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발람은 그가, “내가 의로운 자의 죽음을 죽게 하고, 나의 마지막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민 23:10)고 말할 때 잘 말했다.

출애굽기 15 장은 구속과 구원에 대한 모세의 노래를 기록한다. 1-13 절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그 때 체험하였던 구속과 은혜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하였다. 14-19 절에서 그는 약속의 땅에 평화롭고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특별히, 16-18 절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안전하고 평안한 여정에 대하여 말한다. 이 예언적인 노래가 우리를 위하여 쓰여졌다. 예표적이고, 예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망을 통하여 영광 안으로 그분의 품의 위대함으로 안전하고 평화롭게 통과할 것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크을 인하여 그들이 돌 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와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이 사망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는 쉬운 여정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위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친다.

사들인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사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백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모세는 주의 백성을 주께서 사신 자들이라고 말한다. 누가 이 백성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백성, 그분의 특정한 백성이다. 그 사들인 백성은 영원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기뻐하심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특정하고 구별되게 그분의 소유이다 (신 7:7-9). — 택정하심의 사랑 안에서 선택되었으며 (요 15:16). — 그분의 보혈로 구속 받았고 (벧전

1:18)..— 전능한 은혜로 부름 받았으며 (시 65:4). — 그분의 영의 운행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은 (골 2:12) 소유이다. 만약 당신이 믿는 자라면, 당신은 그분이 사신 그분의 백성 중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만이 그 백성의 구매자이다. 하나님-사람, 우리 중보자로서, 그분만 그것을 하실 수 있고 기꺼이 하셨다. 우리 동족 구속자로서, 그분만 그것을 행하실 법적 권리를 갖고 계시다. 그분만 그것을 하셨다.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구속하시려 시도하거나, 단지 모든 사람을 위해 구속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은 갈보리에서 그분의 속죄제로 그분의 모든 백성을 효험 있게 구속하셨다 (갈 3:13; 히 9:12).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것은 완료된 어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단 9:24; 요 19:30). 그 일은 끝난 것이며, 준비된 것이 아니라, 끝났다. "당신께서 사셨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바 되었다!" (고전 6:20).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신 그

값은 그분 자신의 보혈이다 (벧전 1:18-19; 계 5:9; 행 20:28). 이 영광스러운 주체가 얼마나 우리 혼을 흥분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특별한 구매였다

갈보리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구속은 특별한 구매였다. 그분은 특별한 사람들을, 특별한 값을 치르고, 특별한 사랑 때문에 은혜와 영광의 특별한 축복들을 영원히 누리기 위하여 사셨다.

그것은 합당한 구매였다.

우리는 때때로 "사다" 혹은 "구매하다"라는 말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사 55:1). 우리는 돈도 없고 대가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매입한다. 그것은 여기에서의 경우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실질적이고 합당한 구매를 하셨다.

그것은 합법적 구매였다 (사 43:1).

그 백성들은 이름이 붙여졌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매입하셨다 (사 53:8; 요 10:11, 15, 26). 그 값은 인정되었다 (롬 3:24-26). 그 매입은 이루어졌다 (롬 5:8-11). 그것은 무효화 될 수 없다 (롬 11:29).

그것은 충분하고 완전한 구매이다

여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구매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셀 수 없고, 그분의 보혈 외에는 다른 어떤 대가로 구속 받을 수 없는 많은 수의 사람을 구속하셨고 사셨다 (시 49:7-8; 욥 36:18).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매입하신 이 세상에 있는 백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효험 있게 성취된 구속에 대하여 아는 것만큼 죽어가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은 없다. 칠 년 전, 나는 죽어가고

있는 한 친구를 방문하였다. 내가 그를 떠나려 했을 때 내게 한 그의 마지막 말은, “형제, 나의 소망은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시고 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주신 하늘에 계신 그분 안에 있는 것이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리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리네! 나의 대속물이신 영광 안에 계신 한 사람이 계심을 알게 되어 감사하고 있네. 나의 소망은 그분이네!” 였다. 우리 마음은 구속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음을 아는 기쁨으로 뒤덮였다. 나는 나의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사망을 통한 믿는 자들의 여정

비록 피로 구속 받고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이 사신 백성들은 반드시 사망을 통하여 영광을 들어가는 여정을 가야만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위하여 요르단 강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랑자들은 영광

가운데 있는 그들의 집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망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가 있음을 주지하라.

1. 믿는 자에게 사망은 단지 하나의 여정이다. 사망은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며, 그것이 훨씬 더 낫다 (빌 1:23). 그것은 낮고 외로운 계곡을 통과하는 여정이다 (시 23:4). (이 인생은 사망의 그림자의 계곡이다.) 청교도인 Tomas Brooks 는, “성도에게 죽음은 이 광야에서 향기로운 꽃을 취하고 낙원 동산에 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썼다. 모세는 사망을 강을 건너는 것, 이편의 강가에서 저쪽 강가로 건너는 것에 비교하였다. 믿는 자에게 있어 그 모든 죽음은—이 이방의 저주 받은 땅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고향 땅으로 향한 여정이다!
2. 그것은 필수적인 여정이다. 사망은 반드시 있다. 이것이 모든 세상의 길이다. 그것을 피할 것은 없다. 무덤은 모든 산 것의 약속된 집이다. 당신의 무덤이 웅장한 능묘나 땅 속에 있는

구덩이 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당신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나도 그렇다 (히 9:27; 욥 30:23; 창 47:29). “시간은 이스라엘이 죽어야 하는 밤으로 갔다”는 것처럼, 시간도 우리 각자가 죽어야 할 때가 가까이 온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기 위한 다른 길은 요르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로 가는 길은 무덤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다. 에녹과 엘리야 라 할 지라도, 그들이 사망을 피하였지만,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이 겪어야 하는 변화를 피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도 살아 있을 성도들조차도 변화되어야 한다. 혹자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면, 사망은 결코 시작도 없었고, 사망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면, 죄는 결코 그 종말이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는 분명히 죽는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요 11:25).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으로부터 독침을 제거하셨다. 그는 우리를 사망의 형벌적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는 우리를 둘 째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곧, 그분은 우리를 죄와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 믿는

자 하나 하나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그 구원을 사망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사망 때에 우리는 살게 된다! 우리는 결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나, 그러나 죽어가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사망은 커다란 안도와 위로를 함께 가져오는 친구이고, 환영하며 오래 기다린 친구이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필수적이다. 그것은 은혜로 인하여 환영 받는다. 이 육신의 몸은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다. 사망은 환영의 안도가 될 것이다.

안전한 경로

사망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믿는 자의 여정은 언제나 안전하며 항상 평화롭다. 이 공과를 쓰는 최우선의 이유는 그들을 두렵게 할 사망 안에는 그들 자신이나 구원자의 품 안에서 잠든 그들의 떠난 친구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요르단 강에 와서 그것을 건넌 때, 그로 인하여 아무도

죽거나 실종되거나 다치지 않았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함께 하였을 것이다. 주가 사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요르단 강을 통과하여 하늘에 속한 가나안 안으로 마침내 안전하게 올 것이다. 영생을 명 받은 당신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인 당신은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한 어린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당신은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영의 진실함을 가진 당신은 영광의 충만한 기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발견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그분의 품 안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러질 것이다 (히 2:13).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당신에게 그분은 영광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요르단 강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통과함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도 사망을 통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즉시 하늘로 들어간다 (고후 5:1-4, 8).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대부분의 전심으로

지속해서 하는 모든 기도들은 즉각적으로 응답 받는다. 그들은 부활 가운데 첫째가 될 것이다 (살전 4:16).

더욱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안락하고 위로하는 확신으로 평화롭게 영광 안으로 사망을 통과한다. 모든 믿는 자가 사망의 때에 두려움과 고난에서 절대적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 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제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믿는 자가 사망을 맞았을 때 평강으로 충만하다고 하겠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까지 죽어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 그러나, 필요할 때 그분은 평강을 꺾 주신다. 그 때 당신의 대적들은 “돌처럼 굳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대항하여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놀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어떤 대적도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아무 대적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높이 든 손으로 승리하며 이집트를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요르단

강을 건너갔을 때, 비록 그들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거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강을 건널 때까지 "돌처럼 잠잠하였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사망의 때에도 그와 같다. 일반적인 법칙으로, 그런 영적인 대적들, 곧 당신에게 삶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주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괴롭히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본성적인 내적 죄들과 타락은 확실한 구원이 손에 있을 때 당신에게서 평강을 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John Gill 은,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을 알아차린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롬 7:23-25)."고 말했다. 확신과 평강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죄들로부터 해방되고 완전한 용서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함과 그분의 순결하고 완전한 의를 통하여 받아들여짐에 대한 위로의 관점"에서 생겨난다. Thomas Watson 은, "믿음으로 용서를 기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기쁨으로 죽음을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 청교도 Thomas Goodwin 은 그의 임종 때 그의 사망 시점에 그의 내면의 죄들을 "깍깍 거리는 두꺼비들"로

비유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머지 않아서 나는 더이상 그 껍껍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신의 악한 마음은 불신의 영역을 떠나려 하는 혼을 괴롭힐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불신의 악한 마음보다 더 인생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사망의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 (삼하 23:5)과 바울 (딤후 1:12; 4:6-8)을 다루셨던 것처럼이라도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으로부터 이 괴물을 은혜롭게 쫓아내신다.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하여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 14:32)고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히 11:13)라고 기록되었다. 그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 John Gill 은 옆에 서 있던 친구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다.

당신의 대적 마귀는 당신의 발 아래 그를 밟아버리려 할 때 당신을 압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롬 16:20). 사탄은 아주 바쁜 대적이다. 그의 유혹들은 많고 크다. 사망의 때에 내가 확신하는

것은 사탄이 홍수처럼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를 대항하려 오겠지만, 우리 위로자,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대항하여 깃발을 높이실 것이며 그를 날려버리실 것이다 (사 59:19).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분이 치켜들 깃발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위격, 그분의 피, 그분의 중보, 그리고 그분의 의의 복음이다.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며 하늘을 통하여 영광 안으로 날아가며 “아, 사망아. 네 독침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면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가 했던 그 동일하고 담대한 도전을 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롬 8:31-39)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볼 찌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시 37:37; 참고: 고전 15:55-57).

쉬운 여정

사망을 통하여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안전하고 평강의 여정은 그분의 품의 위대함에 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 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출 15:16-18). 여호수아 삼장을 읽어 보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을 통하여 가나안에 편하고 평강이 충만하여 통과하도록 하신 많은 것을 본다. 주의 임재가 그들을 견디게 하였다 (수 3:10; 시 23:4).

주의 법궤, 성취된 구속과 만족하게 된 공의와 피의 속량의 상징은 그들 앞에서 갔다 (11 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앞서 길을 인도하시며 하늘로 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인도하였다 (수 3:11; 히 6:20). 제사장들이 마른 땅 위에 확고하게

셨던 것처럼 (수 3:17),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복음 위에 확고히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영생에 관한 확신 있는 소망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영감을 준다 (히 13:7-8). 그들 앞에서 갈라졌던 강물의 광경은 (수 3:13) 하나님의 손으로 성취된 구원의 그림이었다. 그 믿음의 확신과 함께 우리는 평강 가운데 잘 죽을 것이다. 사망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는 우리 여정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신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안전하고 쉬울 것이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 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35:8-10)

13. 천국 누가 들어갈 것인가?

계시록 2:1-27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광야에 있는 성막과도 같다.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 빛나고 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운데 내주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그 백성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의 집회를 언제나 참석하시는 한 위격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둘 혹은 셋이 모일 때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마 18:20).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교회로서 모이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입고, 그의 이름을 말하고, 그의 이름의 권위를 외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모이는 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며,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것으로 그분의 피와 의를 신뢰하며 함께 나온다. 그들은 그분을 경배와 기도와 찬양과 믿음 안에서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다. 그분의 이름

가운데 모이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알게 하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는 것이다.

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 인도되고 보호받는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의 상징 아래에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지만, 외적으로, 모든 외적 모습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공통적이고 흥미롭지 않고 경멸스러운 것이다. 열방들에 관한 한 성막은 불완전한 장막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 곳에 계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다. 제단이 그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속죄의 희생제물이 그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멸시하였다. 시은좌가 그 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가난하고 집 없는 백성, 미완성의 장막 외에 경배드릴

곳이 없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하게 참 경배자 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외에는 없었다. 신실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다른 제단에서 경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 어떤 자도 형제로 인정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오직 구원의 한 가지 길-보혈-만 인정하였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박해 받고 조롱을 당하였다.

광야의 성막은 이런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상징과 그림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 내주하신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신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그것은 언제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판이 뒤집힐 때가 오게 될 날이 있다. 종말에 주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 가운데 영광을 계시하고 모든 우주 앞에서 그분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요 17:22-23; 엡 2:7). 계시록 21:10-27 에서,

요한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바울은 에베소서 5:25-27 에서 같은 것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신성하게 하신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완전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 예수께서 그분의 교회 위에 모든 부활 영광을 옷입혀서 아버지의 보좌에 드리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세상이 그분의 교회 위에 부어지고 그 가운데 계시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놀라게 될 것이다.

교회 영광에 대한 요한의 서술을 연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찬양하는 천사들 앞에, 사탄 앞에, 저주 받은 자의 눈 앞에 이렇게 제시될 것이다...처녀 신부 (9 절)...하나님의 성 (10-11 절)...벽 있는 요새 (12 절)...위대하고 장대한 성 (12-17 절). 완전하고 온전한 성 (16 절)...설명할 수 없는 부의 백성 (18-21 절)...완전한 기쁨과 만족의 백성 (22-23 절). 우주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24-26 절).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 가운데 새 창조의 관쓰 영광이 될 것이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9). 하늘의 영원한 기쁨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다리는 영광을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말할 수 없다. 이 복된 자들 가운데 나의 이름을 써라. 내 혼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기다리는 영광을 갈망한다.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분이 계신 곳에 있고, 그분과 같이 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천국 중의 천국이다!

하지만 어떤 자는 결코 하늘의 영광과 기쁨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27 절에 기록되기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하늘은 완전한 거룩 외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함의 영원한 저택이다.

여기에 매우 확고한 사실이 있다 -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하늘은 결코 죄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공의롭고 완전하시다.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그것은 분명 거룩하고 의로우며 공의롭고 완전하다. 무엇이든지 혹은, 누구든지 하늘에 들어가려면 완전하여야만 한다. 어떤 것이든 완전하고 전적으로 완전한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배재할 것이다. 완전한 거룩함은 완전한 거룩함 보다 부족한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죄가 에덴 동산을 더럽혔을 때, 에덴은 영원히 파괴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에게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완전함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은 사망으로 위협한다. 율법은 속량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을 요구하였다. 하나님 자신의 귀한 아들조차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도록 하였을 때, 하나님에 의해 버려지고 죽임당하였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신다. 하늘은 완전함의 세계이다. 모독과 혐오와 속임은 결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죄는 결코 빛의 왕국을 어둡게 하지 못할 것이다. 죄는 결코 그 성의 아름다움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악함이 하늘로부터 차단되는 것은 아주 옳다. 하늘은 결코 죄로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편협하고 귀에 거슬리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이성적인 사람이 공감하여야 하는 의와 공의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 하늘로 가게 될 모든 사람은 이 명령에 완전히 동의한다. -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우리는 죄가 천사들의 세상과 물질적 세상과 우리의 타락한 족속에게 행한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파멸된 하늘을 보게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기쁨의 본질은 그 복된 저택 안에 죄가 철저히 없다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죄가 없는 땅의 시민들이다. 우리는 죄가 결코 발견되지 않을 영원한 세상으로 갈 것이다. 하늘의 가장 크게 끌리는 것들과 가장 소중한 영광들 가운데 한 가지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교제를 누릴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완전한 헌신을 실행할 것이다. 죄가 들어오도록 허락된다면, 모든 것이 파멸되었을 것이다! 죄는 하늘의 평강을 영원히 파멸하고, 하늘의 기쁨을 파괴하며, 하늘의 아름다움을 더럽혔을 것이다.

이런 하늘로부터 죄의 배제는 모든 죄인들에 대한 배제이다.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도!” 더럽히는 자, 타락한 영, 죄로 충만한 자는 새 예루살렘의 문을 들어갈 수 없다. 죄의 기질도, 죄의 생각도, 죄의 뜻도, 죄에 대한 욕망도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만약 죄인이 하늘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는 결코 하늘에 속한 상태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늘의 본질은 상태이지, 장소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경배와 거룩과 기쁨의 상태이다. 만약 죄인이 하늘의 처소에 갈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하늘의 상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요소 밖에 있는 것이다. 그가 만약 하나님께 대한 죄와 반역과 대적의 천연적인 상태 가운데 하늘로 들어간다면 하늘은 그에게 끔찍한 곳일 것이다.

우리 자신의 마음은 이와 같은 배제에 완전히 동의해야 한다. “무엇이든지 속되게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내가 지금 이 순간죄로 충만한 나의 마음과 본성의 나로서 하늘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끔찍한 범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을 더럽힐 것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전염적이고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이 모두에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회에서 건강한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말아야 한다. 건전한 판단으로는 그런 죽음의 전달자는 격리되는 것이 요구된다.

하늘에서 이런 죄의 배제는 오염시키고 혐오스럽게 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자의 절대적인 배제이다. 요한은 모든 종류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사악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죄로 오염되었다면,로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떤 불결한 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사 52:1). 그러나, 배제는 도덕적 타락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바벨론 종교의 영적 타락에 이른다.

“무엇이든지 가증한 일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성경에서 가증한 일은 우상숭배와 우상을 만드는 것과 우상을 경배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언제나 가리킨다 (왕상 11:4-8).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것은 거짓 종교, 우상숭배다! 만약 당신의 종교가 거짓이라면, 만약 당신이 이상한

신들을 경배한다면, 당신은 하늘에 갈 수 없다. 이상한 신은 구원하기를 원하는 신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도움이나 조력이 없이는 그렇게 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상한 신은 그가 사랑하는 백성을 지옥으로 보내는 신이다. 이상한 신은 그 뜻이 좌절되고, 계획이 헛되게 되고, 그 능력이 한계가 있는 신이다. 이상한 신은 그 은혜를 결코 맛보지 못할 그 자신의 귀한 아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신이다.

“무엇이든지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적 거짓말의 거짓 교사들, 발명가들과 하수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딤후 4:1-2; 살후 2:11-12). 모든 자유의지 구원의 전파자, 모든 행위 종교의 전파자, 모든 조건부 은혜의 전파자는 어떤 종파나 교파에 속하든 이런 배제 안에 속한다고 단적으로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한다. 이 확고한 경고를 들어라. 그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그것을 새겨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런 것들에 대한 빛 비춤 가운데 분명하고, 명백하며, 사리에 맞는 추론을 여러분 앞에 제시한다. 그 추론은 바로 이것이다 -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현재 상태로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엡 2:11-13). 당신의 모습으로는 하늘에 갈 수 없다. 그리스도가 없이 죽는다면, 당신이 구원받을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이다. 당신을 위한 아무런 긍휼의 약속이 없다. 당신을 위한 아무런 은혜의 언약이 없다. 당신을 위한 아무런 피의 속량이 없다. 당신을 위한 아무런 용서가 없다. 당신을 위한 아무런 생명의 소망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당신은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대부분 확실하게 자기 구원의 모든 소망을 영원히 죽인다 (렘 13:9). 죄 있는 사람이 그 자신의 죄를 씻어버릴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스스로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죄를 범한 자가 스스로를 위하여 의롭게 할 수 있는가?

사악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중 누구든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 받은 것이다 (엡 2:8).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일지라도 하늘로 들어갈 수 있기 전에 커다란 변화를 겪어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침내 하늘로 갈 준비가 될 때까지 점진적인 거룩과 성화 안에서 하늘을 위하여 더 익고 더 익어간다는 생각에 속해있다. 그것은 간단히 그렇지 않다. 구원 받은 사람은 아무도 더 위대한 거룩을 얻고 있다고 결코 상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후 한참 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실한 섬김의 해를 많이 보낸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무런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죄인들 중의 괴수라고 스스로를 서술하였다 (딤후 1:15; 롬 7:18). 우리의 유일한 거룩은, 그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그리스도이다 (고전 1:30; 히 12:14).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기 이전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육신의 이 옷을 벗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신성한 영감으로 소망의 복된 말씀을 준다. 우리는 악하지 않은 것이 하늘에 들어갈 것이며, 불결하게 하고, 무례히 행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과 앎의 자가 하늘에 들어 갈 것임을 보았다. 아무도 천연적인 것으로 들어갈 권한이 없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가기 위한 권리를 결코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택정함의 책을 기록하셨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서는” 하늘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모든 것이 괜찮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 받아야 한다. 우리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분명하다 - 만약 우리의 이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면, 영원 가운데 거기 기록되었으며, 약속으로 인하여 기록되었고, 그리고 거기 영원히 기록되어 있다. 어린양의 생명책은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책이다. 그것은 어린양의 피로 인한 구속의

기록이다. 그것은 거짓을 말씀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이다.

개인적으로 말해보자.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내가 말하려 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 나의 이름이 그 축복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알며, 그리스도를 신뢰하기에 나에게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로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 (골 1:12; 2:9-10).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 있음이다. 나는 그분 안에서 나는 내 모든 죄에 대한 속량을 갖고 있다 (롬 5:10).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한 의를 갖는다. 그분의 의가 의롭게 하심 가운데 내게 귀속되었고 거룩하게 하심 가운데 내게 주어졌다. 내가 어떻게 그런 위대하고 중대하며 영원한 문제들에 대하여 자신에 찬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소망의 본질이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증의 유일한 기초이다 (히 11:1; 요일 5:1-13).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확신한다. 사망이 왔을 때, 내가 몸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는 즉시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고후 5:1-9).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나의 온 존재 안에서 부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고전 15:51-58).

당신은 마침내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 들어가지 않는 자가 종말에 하늘 안으로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그분만 당신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 우리 죄들을 용서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 더럽혀진 자를 순결하게, 불의한 자를 의롭게, 죄인들을 성도로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14. 아, 놀라운 약속

로마서 16:20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이십 년 전에, 나는 암으로 오랜 기간 싸웠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이 질병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은혜롭고 지혜롭게 이 질병 중의 나를 치유하셨다. 나는 그것을 체험한 것과 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모두 감사한다. 그러나 이십 년 전에 나도 의사도 내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때 오래고 오랜 연속적인 방사능 치료 한 가운데에 있던 때였다. 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약해져 있었다.

그 중대한 시기에 한 친구가 내게 카드를 보냈다. 거기엔 전혀 아무런 말이 적혀있지 않았다. 심지어, “쾌유하라.”는 말조차 적혀있지 않았다. 단지 거기에 기록된 성경 참조구절만 있었다.

거기에 그의 회신 주소가 적혀있지 않았다면,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카드에는 서명조차 없었다. 그러나, 카드에 적힌 본분을 열어서 읽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를 위하여 더 많이 축복하였고 세상 도처에 있는 나의 많은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모든 편지와 카드와 방문보다 더 큰 힘과 평강을 주었다. 그들의 말은 달콤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고 크게 감사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효험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은 로마서 16:20 에서 볼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는 당신에게 효험 있도록 하실 것을 기도한다 -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찌어다. 아멘.”

이 공과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하심과 그분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분의 말씀의 복된 능력의 나의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탄생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사탄에 의해 지금 크게 억압받는 그분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쓰여졌다. 내가

쓰면서, 믿음의 큰 시험을 견디는 귀한 친구들인 하나님의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당신 자신의 마음이 현재 단순히 너무 커서 견디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슬픔과 시험과 유혹들로 압도되고 있을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마음을 잡아라. 만약 당신이 진실로 믿는 자라면, 만약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이것은 당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들에게 사탄에 대하여 확실하고 빠르고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다. 로마서 16:20 에서 성령께서 우리 앞에 분명하게 제시된 세 가지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평강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적당한 직함을 주도록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았다. -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직함은 사도 바울의 글 안에서 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직함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평강의 하나님” (롬 15:33; 빌 4:9; 살전 5:23; 히 13:20). 바로 다음 내용에서, 바울은 반목과 분열 가운데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와 평안한 하나님의 역사를 대비하고 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복음에 모순된 교리로 교회 안에서 반목과 분열을 낳은 자들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17-18 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 (잠 13:10; 28:25). 그리고 아르메니아주의, 자유의지, 행위 종교, 자기의의 교만한 가르침,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분열과 범죄의 원인이 되는 복음의 “교리에 모순”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바울은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구별하고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평강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말에 대한 문맥상 해석이다. 여전히,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성령께서 바울이 이 직함을 우리 하나님께 붙이도록 영감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모든 평강, 곧 현세에서와 영적이며 영원한 평강의 창시자이고 조물주이며 수여자이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라 부른다. 하나님만 "내가 평강을 끼치노라." (사 45:7)라고 신실하게 선포하실 수 있다. 열방 가운데 시민의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정 가운데 가족의 평화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마음 가운데 영적 평화는 하나님 자신 외에 아무도 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위한 이 직함은 그분의 성도들 가운데와 그분의 교회 안에서 모두 "이해를 통과하는 그 평화"의 원천이고 조물주이며 수여자시라는 사실로부터 우선적으로 떠오른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영원부터 오는 "평강의 생각들"이다 (렘 29:11). 은혜의 언약, 즉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 그것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결정된 "평강의 언약"이다 (사 54:10; 겔 34:25; 37:26).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귀한 아들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도록 약속하셨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골 1:19-22).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위에 우리 평안의 징벌을 두셨다 (사 53:5).

그리스도의 피가 범죄한 혼에 효험 있게 적용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평강을 말씀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히 9:14).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통치하시는 정도까지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발견한다 (골 3:5).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가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평강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평강이며, 그분의 섭리의 지혜와 선하심 가운데 확신에 찬 믿음의 평강이고, 형제 사랑의 평강이며, 영원과 관련한 복된 소망의 평강이다.

확실한 약속

하나님의 영은 바울이 시험 받은 자를 위한 확실한 약속을 선포하도록 영감을 주셨다. 이것은 시험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자들로 살게 되면, 그들을 위한 위로의 말씀도 찾을 수 없거나 그들에게 주신 선하심과 은혜의 약속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불신자들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은혜에 대한 반역자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지 두 가지 약속들이 당신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죄를 지은 혼, 그것은 죽을 것이다.”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 시험 받고, 유혹 받으며, 고난 받는 믿는 자에게 확실한 약속이다 -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는 확실하며, 그것은 속히 올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머지 않아서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사탄이 세력을 넓혔던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이 포기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은 오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려 나타나실 때, 아주 속히 “그분은 당신의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창 3:15; 시 91:13; 막 16:18). 여자의 씨인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소유인 우리도 역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사도는 우리가 우리 발 아래서 사탄을 상하게 할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분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한다.

당신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아는가? 사탄이 지금 당신을 고소하고, 방해하고,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의 평강을 방해하는 자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더이상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사탄이 한 때 우리 주인을 괴롭히도록 허용되었다면, 우리는 왜 아니겠는가? 하지만, 우리 구원자께서 그를 이겼던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도 역시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요 12:31-33). 그분께서 사탄을 정복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전능하신 은혜로 구원하셨을 때 사탄의 거처를 못쓰게 하셨다 (마 12:29; 막 3:27). 사탄이 우리를 해치고, 우리 평강을 방해하며, 의심과 두려움과 혼란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우리 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발 아래서 그를 상하게 하신다 (애 3:21-33). 하지만, 배려 아래 한 약속은 당신과 내가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궁극적으로 압도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이다. 곧 우리는 뱀의 접근은 물론 그 헛소리로부터 나올 것이다. 은혜가 그 날을 쟁취할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복자들 보다 더" 영원히 존재 하게 될 것이다. 잠시 더 견디어라.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버티어라. 다만 조금만 더 오래 인내하라. "잠잠히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 곧, 당신의 고난의 홍해가 당신 앞에서 갈라질 것이다. 당신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통과할 것이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당신의 모든 대적들이 물가에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모세와 어린양의 찬양을 승리에 차 웃으며 노래하게 될 것이다. 곧,

아주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으로부터 꺼내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라. 그것은 모든 시험 받고, 고난 받으며, 사탄 공격을 받는 믿는 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는 하나님의 경쟁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는 하나님의 마귀이다. 그는 당신을 해칠 수 없다. 그는 으르렁대는 사자이지만, 그러나 송곳니도 발톱도 없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갈보리에서 끌어내렸으며 그분의 주권적인 전능의 사슬로 그를 묶으셨다 (요 12:31; 계 20:1-3). 곧 당신은 사탄을 비웃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당신의 고난을 이긴 것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사탄이 결코 당신의 불멸의 혼의 유익을 섬기지 않는 어떤 것도 결코 행하도록 허락되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다 (히 1:14). 그리고 비록 그가 그 존재의 모든 것으로 대적하겠지만, 그는 그 계획에 순복 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옛 대적들과 대적하실 때, 대적을 유황불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에 그를 넘기실 것이다. 그러면, 그 때가 되지도 않고, 그러나 그 때 우리는 이 약속을 완전히 이해할 것이다 -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한편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혼을 죄어들과 있는 애통함과 고난을 어떻게 지고 갈 것인가? 당신은 아마도 “나는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로마서 16:20 의 마지막 문장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들을 위한 달는 기도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선택 받은 자를 위한 축도를 우리를 위하여 쓰도록 영감을 받았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선하신 역사가 당신 안에 있을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다면, 누가 무엇이 우리의 대항이 될 수 있는가?
이 은혜로운 축도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당신에게 보여 주겠고, 다 했다.

1. 만약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면, 그러면 은혜는
하나님 만의 선물과 운행하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엡 2:8).
2.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받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는다. 그분이 당신을 위하여 그 피를 흘렸는데
당신에게서 그분의 은혜를 거두실 것인가? 결코 아니다! (엡
1:6). 모든 구속 받은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충만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를 받는다. 용서하는 은혜,
의롭게 하는 은혜, 거듭나게 하는 은혜, 성화롭게 하는 은혜,
그리고 보존하는 은혜,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들 모두에게 속한다 (엡 1:3).

-
3.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만족하기에, 심지어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충분하다 (고후 12:9).
 4.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침내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갈 것이다. 은혜는 시작된 영광이다. 영광은 완성된 은혜이다. 두 가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 (시 84:11).
 5.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백성과 하늘에 속한 영광에도 보증이 된다 - "아멘!"

그 말, "아멘"은 하나님께 기인하는 직함이며,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당신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약속이며,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영광의 축복이라는 약속을 가리킨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성령께서 "아멘!"이라고 답하신다. "그렇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약속을 이렇게 읽어라 - "평강의 하나님 (아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 찌어다. 아멘!"

15. 귀한 죽음을

시편 116:15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것은 다윗의 가장 위대한 시편 중 하나이다. 믿음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사람이었던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이어왔던 시편이다. 다윗은 신학 책이나, 종교적 전통이나, 혹은 다른 감상적 이야기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씀들은 다윗의 마음에서 일어났으며 그의 생각과 감정과 감상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신성한 영감의 말씀이며, 우리의 배움과 훈계와 위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시편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한” 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벧후 1:21). 우리는 매우 자주 이 두 가지 사실들로 일깨워진다. (1.) 모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생각과 감상과 감정과 개인적 특징을 나타낸다. (2.) 하지만,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이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았으므로, 성경 전권은 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딤후 3:16).

하나님의 종 다윗의 붓에 의해서 이 시편 116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홉 가지를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는 죽음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에 더 대답을 주고자 한다.

1. 다윗은 주를 사랑함에 대하여 말한다 (1 절; 요일 4:19). “그가 우리를 처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한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앞선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전적으로 초월한다!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원인이 된다. 여전히 이것은 모든 거듭나고 믿는 마음의 참된 고백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께서 긍휼을 구하는 나의 울부짖음과, 용서를 구하는 나의 기도와, 회개하는 나의 탄원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
2. 시편 저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한다 (2 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를 믿음 안에 지키셨고, 믿음 안에 그를 지키셨을 것을 믿었다. 다윗은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나왔으며, 어떤 죄인이라도 그분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왔다 (히 11:6).
3.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 고난과 애통에 대하여 말한다 (3-4 절). 물을 필요 없이, 이 짧은 공과에서 꺼낼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것이 시편 안에 있다. 하지만, 본문의 의미는 분명하다. "사망의 슬픔"은 성령의 정죄로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애통함이다 (요 16:8-11). "지옥의 고통"은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의 고뇌이다 (눅 18:13). "고난과 애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평강을 구하는 혼의 몸부림이다 (시 103). 실상의 결과, 성령의 정죄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오 주여, 당신을 구합니다. 나의 혼을 구하소서."

-
4. 다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말한다 (5 절). 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의로우며 자비로우시고 자비로 총만하시다!
 5. 그리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신실하심에 대하여 말한다 (6-8 절). “주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신다.” - 한 가지 마음인 자; 신실한 자, 믿는 자이다. “내가 낮아졌으며, 그가 나를 도우셨도다.” 다윗을 도우셨던 그 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히 4:16). 시편 저자는,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장래에 나를 과거에 구원하셨던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7-8).
 6. 9 절에서, 다윗은 복된 소망의 확신으로 말한다. 그리스도만을 구원자와 주로서 신뢰하는 모든 자, 그분만을 의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분으로 바라보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과 하늘 영광에 확실히 참여하여 살 이유를 갖고 있다 (딤후 1:12; 시 23:6).
 7. 10-11 절에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이 사람은 믿음과 고백과 고통에 대하여 한 숨으로 말한다. 이 세 가지 것들은 언제나 나란히 다닌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자는 그분을

그들의 주로서 고백하며 그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을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고백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를 성경 안에 계시된 분으로서 죄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 받을 것이다.

8. 시편의 후반 부에서, 다윗은 그의 모든 생각을 구원의 위대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 향하게 하는 것 같다. 그는 감사 (12 절), 그리스도께 대한 서약 (13 절), 공개적인 경배와 찬양 (14, 17, 18, 19 절), 그리고 믿는 자의 자발적인 행복과 헌신 (16-18 절)에 대하여 말한다.
9. 경배에 대하여 말하는 바로 그 한 가운데에서, 다윗은 보배로운 죽음에 대하여 말한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15 절). 성경이 많은 것을 보배로운 것이라 말하는 한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오직 두 가지를 계시한다. 그분의 아들이 귀중하다 (벧전 2:4). 그분의 백성이 귀중하다 (사 43:4).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한, 그분의 백성에 대한 모든 것이 귀중하며, 그 사실이 내게 귀중하다.

“그들의 혼의 구속이 귀중하다.” (시 49:8). “그들의 생명이 귀중하다.” (시 72:14).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대답을 얻을 수 있다. 가족에게,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버린 빈 자리를 의미한다. 의사에게, 그것은 환자를 잃은 것이다. 전기작가에게, 그것은 책이 끝나는 마지막 장이다. 신문에게, 그것은 사망 광고에 있는 한 쪽지이거나, 아마도 단신이다. 보험회사에게, 그것은 지불 청구이다. 신학자에게, 죽음은 몸에서 혼이 분리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죽음이든 혹은 친구의 죽음 혹은 금방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런 사실에 입각한 답변은 아무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무엇이 죽음인가? 여기 그 질문에 대한 네 가지 답변이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경험하게 될 한 가지 것이다.

(1.) 사망은 죄의 결과이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롬 5:12). “죄의 삯은 사망이요” (롬 6:23). 사망의 일반적인 사실보다 원죄의 성경 가르침을 위한 더 큰 증거는 없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 죽는다.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두 죽는다.

(2.) 사망은 하나님의 법이다.

“주께서 죽이시고 주께서 살게 하신다. 사람의 죽음의 둘째 이유가 무엇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다.” (욥 14:1-5).

(3.) 사망은 육신의 썩음이고 하나님께 혼의 돌아감이다.

“육신은 그것이 왔던 땅으로 돌아가며 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심판이나 공휴 가운데 그 혼이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기서 고려될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다. 곧, 당신과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는 신실하게 말했다 -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우리는 매우 속히 그분을 만날 것이다.

(4.) 사망은 세상에서 생명의 종말이며 영원한 존재의 시작이다.

사망 후의 생명은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다. 사망 후 생명은 사실이며, 사람의 양심 위에 너무도 철저히 찍혔기 때문에 간단히 지워질 수 없는 사실이다 (마 25:46; 히 9:27). 이것이 사망이 무엇인가 이다. 죄의 결과 - 하나님의 법. 몸의 부패와 하나님께 혼의 돌아감 - 영원한 존재의 시작. 하지만, 성령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라.” 따라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믿는 자의 죽음을 귀중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믿는 자들은 성도들, 거룩하게 된 백성이다. 우리는 택정하심 가운데 거룩함에 택함 받았으며 (유 1), 구속과 의롭게 함 가운데 거룩하다고 선포되었으며 (히 10:10, 14),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본성을 분배하심으로 거듭남 가운데 거룩하게 되었다 (벧후 1:4; 요일 3:5-9).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 배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성도가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귀중한 것으로 바라보신다. 왜?

하나님의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방법들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기에 귀중하다. “주께서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보고 아는 모든 것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귀중하게 된 사망에 대하여 말하기란 어렵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제인 것들을 보신다. 그분은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 결코 어떤 의미에서도 손실이 아니라, 오직 큰 소득이라는 것을 아신다 (빌 1:21).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별이 아니라, 승진이다. 사망은

생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는 것이 유익이다.” 약하고 죽을 몸을 잃는 것은 불멸의 영원하고 강한 몸을 얻는 것이다. 죄에 속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완전한 의에 속한 하늘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진흙 집을 내려 놓는 것은 임마누엘의 영광된 땅 가운데 손으로 짓지 않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임시 상태에서 떠나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비탄스러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무한하고 하늘에 속한 기쁨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죽는 것이 유익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망은 그들을 구속하였던 피가 그분께 귀중하기 때문에 그분께 귀중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피의 속량으로 하나님께 속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 되었다. 우리의 보증인으로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그분의 택하진 자를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신뢰로 받으셨다 (엡 1:12). 우리의 구속자로 그분은 사들인 소유로서 율법으로부터 속량 받은 그분의 사람들을 받으셨다 (갈 3:13). 우리 구원자로 주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의 선물로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과 은혜의

약속된 시간에 택함 받고 속량 받은 그분의 사람들 각각을 받으신다 (요 6:37-40).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권능으로 부활 영광 가운데 그분의 모든 백성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택함 받은 자들이 땅에서 하늘로 사망 가운데 부름 받을 때 한 사람씩 그분의 중보기도에 아버지의 응답으로 받으신다 (요 17:24).

그분의 성도들이 그분께 귀중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다.” (렘 31:3; 요 13:1; 고전 2:9). 그분은 택정과 구속과 칭의와 거듭남과 성화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행하셨다. 그분은 보존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듣지 않았으며 어떤 생각도 품지 않았던 것을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창고 안에 갖고 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 (고전 13:10-13).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것들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 (요 14:1-3).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놀라운 것들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 (엡 2:7).

이 선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관해서 무한하고, 제한 없고, 무조건적인 진리의 선포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다.”

그것은 누가 성도인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스테반과 같은 순교자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했을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가장 하찮은 성도의 그것보다 더 귀중하지 않았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을 낙원으로 데려갈 동일한 담당 천사들, 하늘에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일한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영광의 기업을 갖고 있다 (롬 8:17).

믿는 자가 언제 죽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때가 이른 죽음과 사고와 미숙하게 마친 목숨에 대하여 말한다. 그러나 때가 이른 죽음은 없다. 모든 믿는 자의 생명은 완성되고 성취된 계획이다. 하나님은 그분을 기쁘게 할 때, 그분이 약속하신 그 때 그분의 성도들을 취하신다. 우리의 주인은 포도가 익고 딸 준비가 되었을 때 그분의 포도원의 포도를 따신다. 그분은 결코 푸른 열매를 따지 않으시며 그분의 열매가 덩굴 위에서 썩도록 두지 않으신다. 모든 믿는 자에 대하여 찬송 작가가 썼을 때 옳았다...

“이곳에서 인간은 불멸하네, 그들의 일이 끝날 때까지.”

믿는 자가 죽는 곳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외로운 병실 안일 수 있다. 아마도 복잡한 고속도로 상일 수도 있다. 끔찍한 전쟁터 위일 수도 있다. 자신의 침대 속일 수도 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다.” 수년 전, 영국에 나이든 전도자가

한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했던 것처럼 첫 절을 제시하면서 한 찬송을 큰 소리로 불렀다...

“아버지, 갈망합니다, 당신이 거하는 그 곳을 보기를 갈망합니다, 이 땅의 궁전을 떠나 당신의 보좌로 가렵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고, 그의 강단 뒤로 넘어지고 사망하였다.

믿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죽는 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서 매우 보기 드문 방법으로 죽은 사람들을 알았다. 나는 갑자기 경고도 없이 죽은 많은 사람들을 알았다. 나는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은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믿는 자가 어떻게 죽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손에 죽으며, 그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

불신자의 죽음은 어떻게 되나?

불신자의 죽음에 대하여 즐겁고, 위로가 되거나, 귀중한 것은 전혀 없다. 나는 한번은 아버지가 반역과 불신의 상태에서 죽은 한 젊은 여자를 알았다. 그녀가 그의 관 옆에 서서, 애통한 마음으로, 찾아온 거의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자, 이제 네 아버지는 더 나오시다.” 말했다.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은 후, 그 젊은 여자는 마침내 누군가에게 말했다. “그는 지금 지옥에 있어요! 당신은 그것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겁니까?” 불신자의 죽음은 끔찍하고, 비극적이며, 형언할 수 없는 비통이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주 받았다고 쓴 곳에 복되다고 쓸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쓰신 곳에 저주 받았다고 쓸 수 없다. “만일 네가 네 죄 가운데 죽으면,” 우리 구원자께서, “내가 있는 곳에 너는 올 수 없다.”고 하셨다. 하지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분께서, “내가 있는 그 곳에 너희도 또한 있 (을 것이)다.”고 하신다.

내가 하늘이 저택에 분명한 나의 칭호를 읽을 수 있을 때,
모든 두려움에 작별을 고하고 눈물 흘리는 눈을 닦을 것이다.
거친 홍수가 오고 비통함의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염려하게
하라,

나의 집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 나의
모든 것!

하늘 평강의 바다 가운데 나의 지친 혼을 씻을 것이라,
나의 평안의 가슴으로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지 않으리.

당신이 나의 눈을 바라볼 때 줄이 끊어지리,
(나의 잠깐이 얼마나 달콤하게 밀려오는지!)

숙명의 창백함이 내 볼에 있고, 내 혼에 영광이 있노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은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세상은 말한다. “부유하고, 유명하고, 건강하고, 명예로운 자는 복되다.” 세상은 당신을 그 사치스럽고 호사스러운 집단으로 끌어들인다. 그곳의 사람들은 웃고, 노래하고, 춤춘다. 그 방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아무것도 부요한 자와 전능한 자에 도달하지 않는다. 미소 짓는 영웅에게서 서명을 구한다. 가장 좋은 것이 세상이 복 받았다 부르는 자들에게 좋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며, 한 번의 바람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자,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라. 그곳에는 완전한 침묵이 있다. 아내가 죽어가는 남편의 침상 곁에 앉아서 그 손을 잡고 있다. 자녀들이 침대 주변에 서 있다. 눈물이 그들의 뺨에 소리 없이 흐른다. 오직 시계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짧은 순간 동안 그 사람은 그의 눈을 크게 뜨고,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순간을 위한 깊은 숨을 쉰다. 그의 영이 떠났다.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복되도다! 복되도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쓰신 곳에 저주 받았다 쓸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저주 받았다 쓰신 곳에 복되다고 쓸 수 없다.

언젠가 은 줄이 끊어질 것이며,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지금 같이 노래하지 않으리, 그러나 아 내가 왕의 궁전에서 깨어날 때 기쁨이

있을 것이라. 언젠가 내 세상 집은 허물어질 것이며, 얼마나 속히
그럴지 말할 수 없으나 이것 만은 아네 -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처소를 하늘에 두노라! 언젠가, 그 때까지, 나는 깨어
기다릴 것이라, 나의 등은 모든 채비되어 밝게 빛나고 있구나, 나의
구원자께서 문을 여실 때, 내 혼은 그분께 날아 가리라.

16.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시록 22:4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늘은 성경 안에서 영원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를 기다리는 낙원의 많은 그림들로 제시되고 있다. 하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이다. 그것은 영존하는 왕국이다.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다. 하늘은 우리의 사들인 기업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성이다. 그것은 우리 집이다. 하늘은 우리의 마지막으로 안식하는 장소이다. 이것과 많은 다른 묘사 구절들이 기쁨과 참여로 우리 마음을 채운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상태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의 완성이며, 바로 하늘 중의 하늘이다 - “그리고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며 살 수 없다.”고 하셨고, 그분은 세상의 인간에

불과한 자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과 깨끗함을 입은 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앞으로 올 영광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살 것이다. 실로 우리 생명의 본질과 뛰어남이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인격의 표출된 형상이신 그분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하늘이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와 얼굴을 대하리, 얼굴을 대하리, 그것이
있을 것이라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분을 들림 받음과 함께
바라볼 때가 언제인가?”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대하여 매우 육체적이고 비성경적 상상을 한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단지 그들의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 생각할 뿐이다. 그들은 하늘이 그들에게 천연적이고 물질적인 방법 속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 위로와 즐거움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에게 황금길, 진주문, 그리고 벽옥 벽은 충분하다. 나는 그곳이 자신들의 종교적 교만과 자기 의를 만족할 장소로서만 하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도 했다. 어떤 종교적 교파들은 그들의 종교의 특정한 상표가 그들에게 영광 안에서 우월한 장소를 줄 것이라는 헛된 상상을 갖고 있다. 교만하고 자기 의의 편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도 모두가 그들 아래에서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상상한다!

하늘에 대한 그와 같은 육적인 상상은 거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늘에는 우리가 보고 누릴 많은 것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역하였던 거룩한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히 1:14). 육과 뼈의 사람들은 그룹과 스랍과 함께 교체할 것이다. 가브리엘과 모든 하늘의 주인들이 우리에게 의해 알게 될 것이다. 시간의 그 이른 날들에 하나님을 섬겼던 열조들을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 홍수 전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보이고 알려질 것이다. 그 피가 교회 역사의 장들을 적시고 기록했던 그 순교자들이 보일 것이다. 땅 위에서 달콤한 교통을 함께 누렸던 그 형제들이 우리에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들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보일 것이다. 물을 필요 없이, 우리의 영화롭게 된 상태 안에 땅에 묶임은 더이상 우리를 가르치지 못할 것이지만, 그러나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았던 것처럼, 서로를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늘의 가장 큰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대면하여 볼 것이 사실로 될 것이다. 하늘에서 다른 어떤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시편 기자와 함께 우리는 가장 기쁘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 73:25)라고 선포한다.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며, 하늘에서 우리는 그분이 영원히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될 것을 갈망한다. 여기 땅 위에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처음 바뀐 것이 그리스도를 만났기였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에 속한 매일 새롭게 함이 우리를 이 세상의 관심 위로 올려 놓는다. 여기에서 조차,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우리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만약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이라면, 영광 안에서 그분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낙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집중적이고, 영원하고 영적인 교제의 하늘이다. 하늘은 이것이 약속된 곳이다 -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분의 등의 일부를 보았다고 듣는다. 그는 전능하신 분의 옷자락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구원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비록 그분이 영화롭게 되었지만, 갈보리에서 죽은 바로 그분이 영광의 보좌 위에 계신다. 우리는 그분, 하나님-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구속 받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 - 그분의 손, 그분의 발, 그분의 옆구리, 그분의 머리,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더욱 달콤한 것은 우리 구속자의 완전하고 영적인 모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본문은 우리가 더욱 충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므로 다음 세상에 더 큰 능력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오직 유아들 뿐이다. 이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이제 우리는 흐릿한 유리를 통하여 본다. 하늘에서, 우리는 구원자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려지게 된 것조차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될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구원자를 언제나 보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결코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를 품기를 결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때로는 보좌 가까이 있고, 다른 때는 멀리 떨어져 있다. 때로는 천사처럼 밝게 빛나지만, 다른 때는 납처럼 멍청하다. 때론 사랑으로 뜨겁고, 또 다른 때 우리는 냉담함으로 차갑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가까이 가능한 관계 안에 영원히 있게 될 그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끊임 없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구원자의 얼굴을 지금 모습 그대로 그분의 영광의 총만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요 17:24). 요한은 우리에게 1 장 13-16 절에서 그 것을 약간 제시하였다. 그것을 다시 읽고 이 복된 소망의 기대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인가

본문에 있는 “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총만하며 흐리지 않은 광경을 내포한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이 제거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볼 것이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육체적 본성이 완전히 제거될 것이다. 우리의 이상을 지금 흐리게 하는 그런 세상적 관심사 모두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끝날 것이다 (계 21:4).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구원자 사이에 아무것도 서있지 않을 것이다. 영광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 아무런 경쟁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보지만, 그러나 그 때 믿음이 보도록 돌이켜 질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 욥의 말은 믿는 자의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의 합당한 고백이다 (욥 19:25-27).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역사의 모든 충만 가운데 우리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인경을 완전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의 영화롭게 된 남자의 완전함 가운데 영원히 축복받을 것이다. 그 날,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실행의 충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보증인-선지자, 대제사장, 왕, 남편, 목자, 그리고 대속물-으로서 그분의 모든 중보적 책무의 완전함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오게 될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는 은혜의 충만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택정하심의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피의 속량의 대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보존하시는 은혜의 선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 눈은 그분 만을 위한 예배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오게 될 영광의 그 세상 가운데 사람의 자유 의지의 능력이나 사람의 행위의 선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들을 듣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우리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존귀와 권능과 영광과 통치를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시 115:1; 계 1:5-6; 5:9-10)라고 말할 것이다.

환희와 기쁨의 이상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상을 하늘의 가장 큰 환희와 기쁨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는 것은 하늘 중의 하늘,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그런 중요성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이 한 가지 관점에 두는가? 그 대답은 분명하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곧 부활의 날이 올 것이며, 모든 자들이 위대한 하나님과 구원자를 보게 될 것이다. 사악한 자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때 그들은 그분의 격렬한 진노 안에서 소멸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보고 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며 불타는 덩불과 같을 것이지만, 소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의 혼은 모든 죄의 자국들이 지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은 멸절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으며,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의식하게 될 것이며 그분과 완벽하고 방해 받지 않은 교통을 갖게 될 것이다. 영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완벽하게 걸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됨의 의미를 완전히 알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볼 때 그곳에는 완전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 “그분이 계신 그대로 그분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처럼 될 것이다.” 우리는 완벽하게 그분이 보시는 것처럼 사물들을 보며,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뜻하시는 것을 뜻하며,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을 볼 때 완벽하게 만족하게 될 것이다 (시 17:15).

약속의 대상들

이 약속이 주어진 그들은 누구인가? 사도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외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계 21:27).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대상들인 그들 각 자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의 회의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각 혼이 영광의 뜰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엡 1:4). 그분의 아들이 될 것으로 미리 예정된 모든 자가 그분의 아들을 보게 될 것이다 (롬 8:29). 갈보리에서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었던 모든 혼이 하늘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받아들여지고, 용서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사들여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사 53:10-12).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부름 받고 신성한 능력에 의해 거듭난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엡 1:13-14).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모두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요 1:12-13). 왕이신 예수께 복종하며 앞드려 절하는 모든 마음은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눅 14:25-33).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딤후 4:8). 땅 위를 걸었던 가장 비열하고 가장 가증스러운 비열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씻김 받았고, 그들은 의롭게 되었으며, 그들은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동등한 정결함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에 두 번째 가는 기쁨을 읽은 적이 없다. 새 예루살렘에 뒷골목은 없다! 하늘에 등급의 교리를 발명한 자는 누구든지 대가 없는 은혜에 대하여 몰랐다. 더이상 없지만, 연옥의 교리가 있는 것만큼 성경에 그와 같은 교리를 위한 많은 샘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자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이상 무엇을 원할 수 있는가? 죽어가는 도둑이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갔으며, 바울도 그랬다. 하늘은 모두 빛이 아닌 은혜의 보상이며 모든 은혜의 상속자들이 완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롬 8:17). 모든 구원받은 자는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의해 사랑 받는다. 우리는 모두 같은 피로 구속 받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근거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같은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다.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우리를 위하여 받았으며 사들여졌다. 그리고 모든 그 충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비통한 세상 가운데 이 소망으로 당신 자신을 위로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